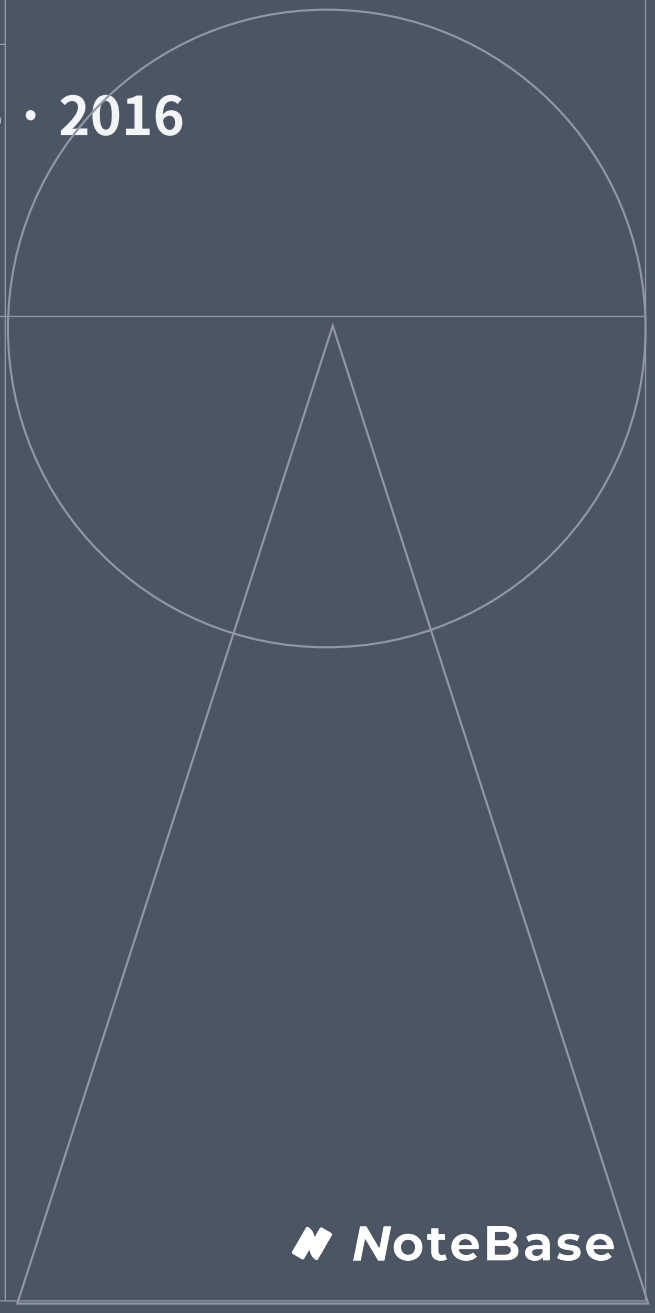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6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6

문 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규정 하지 아니한다.

②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받는 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다.

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무제표의 표시·상계·유동성 분류·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 여부·경영진 판단 공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분류조정은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처리이다.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해서 모두 재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이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등에 표시할 최소 항목은 정하지만, 항목을 배열하는 획일적인 순서나 형식까지 규정하지는 않는다. 기업은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도록 항목의 배열과 세분 표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O. 충당부채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을 제3자가 보전하고 그 보전액을 인식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충당부채 관련 비용을 보전액과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재무상태표에서는 충당부채와 보전자산을 각각 인식한다.
③ O. 보고기간 말 현재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적어도 12개월 동안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없다면, 차환을 기대하더라도 그 기대만으로 비유동부채가 되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세 항목을 모두 '재분류조정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한 부분이다. 문항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체계에서 그 재측정손익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후속 요건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지만,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재분류조정이 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이다'라고 해야 한다.
⑤ O. 회계정책 적용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 중 재무제표 인식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은 추정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와 구별하여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또는 기타 주석과 함께 공시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모두 기타포괄손익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핵심은 기타포괄손익의 인식 여부와 후속 재분류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타포괄손익 항목이 나오면 먼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가'를 확인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판단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후속 요건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확정급여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지만 당기손익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NoteBase

문 2. (주)세무의 20x1년도 재무제표의 상품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도 (주)세무의 상품매입과 관련된 현금유출액은? * 환율변동이익은 매입채무에 포함된 외화외상매입금에서만 발생함

기초매출채권	₩40,000	기말매출채권	₩50,000
기초상품재고액	30,000	기말상품재고액	28,000
기초매입채무	19,000	기말매입채무	20,000
기초선수금	20,000	기말선수금	15,000
기초선급금	10,000	기말선급금	5,000
매출액	400,000	매출원가	240,000
환율변동이익*	4,000		

① ₩222,000

② ₩228,000

③ ₩236,000

④ ₩240,000

⑤ ₩24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매출원가에서 당기 상품매입액을 역산한 뒤, 매입채무·선급금의 변동과 매입채무에서 발생한 환율변동이익을 반영하여 상품매입 관련 현금유출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원가 240,000원, 기초상품재고액 30,000원, 기말상품재고액 28,000원이다. 기초매입채무는 19,000원, 기말매입채무는 20,000원이며 매입채무에 포함된 외화외상매입금에서 환율변동이익 4,000원이 발생하였다. 기초선급금은 20,000원, 기말선급금은 15,000원이다. 기초·기말매출채권, 매출액, 기초·기말선수금은 상품판매 관련 항목이므로 상품매입 현금유출액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재고자산 원가흐름은 $COGS = BInv + P - EInv$이므로 당기 매입액은 $P = COGS - BInv + EInv$이다. 상품매입 관련 현금유출액은 당기 매입액에서 매입채무의 영업상 증가액을 빼고 선급금 증가액을 더한다. 환율변동이익은 현금 지급 없이 매입채무를 감소시키므로, 매입채무의 영업상 변동을 구할 때 기말매입채무에 환율변동이익을 다시 더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 상품매입액은 240,000원 - 30,000원 + 28,000원 = 238,000원이다.
2. 환율변동 전 기말매입채무는 20,000원 + 4,000원 = 24,000원이므로 매입채무의 영업상 증가액은 24,000원 - 19,000원 = 5,000원이다. 이 금액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액이므로 현금유출액에서 뺀다.
3. 선급금 증가액은 15,000원 - 20,000원 = -5,000원이다. 선급금이 5,000원 감소했다는 것은 과거에 지급한 선급금이 당기 매입에 사용되었다는 뜻이므로 당기 현금유출액에서 5,000원을 뺀다.
4. 상품매입 관련 현금유출액은 238,000원 - 5,000원 - 5,000원 = 228,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22,000원은 틀린 금액이다. 당기 매입액 238,000원에서 근거 있게 차감되는 금액은 매입채무의 영업상 증가액 5,000원과 선급금 감소액 5,000원뿐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228,000원이다.
② O — 매입액 238,000원에서 미지급 증가분 5,000원과 과거 선급금 사용분 5,000원을 차감하면 228,000원이 된다.
③ X — 236,000원은 틀린 금액이다. 매입채무와 선급금의 조정 합계는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 감소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228,000원이다.
④ X — 240,000원은 매출원가이지 상품매입 관련 현금유출액이 아니다. 재고 변동으로 매입액을 238,000원으로 역산하고 매입채무와 선급금까지 조정하면 228,000원이다.
⑤ X — 248,000원은 매입채무 증가액과 선급금 감소액의 방향을 반대로 더할 때 나오는 금액이다. 두 항목은 당기 현금 지급을 각각 5,000원씩 줄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22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환율변동이익 4,000원을 현금유입이나 현금지급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 이익은 현금 이동 없이 매입채무 장부금액을 줄였으므로 기말매입채무에 다시 더해 영업상 증가액을 구한다. 또한 선급금 감소는 당기 매입대금 일부를 과거 지급액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당기 현금유출액을 줄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로 당기 매입액을 구하고, 다음으로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환산손익을 제거하여 매입채무의 영업상 변동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선급금의 증감까지 반영하면 상품매입 관련 현금유출액을 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매입 현금유출액은 '당기 매입액 - 매입채무의 영업상 증가액 + 선급금 증가액'이다. 환율변동이익처럼 비현금 요인이 매입채무를 줄였으면 그 효과를 먼저 되돌린다.

NoteBase

문 3.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한다.

② 자산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③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정부보조금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정부보조금의 인식 요건, 손익 인식 시기, 재무제표 표시 방법 및 상환 시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부보조금은 부수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인식한 보조금은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나중에 상환의무가 생기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부보조금은 부수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모두 있을 때 인식한다.
② O — 자산 취득과 관련 보조금 수취는 재무상태표에서 보조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는지와 무관하게 현금흐름표에서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는 투자 관련 현금흐름을 총액으로 보여 주기 위한 처리이다.
③ O — 비상각자산 관련 보조금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 조건이 붙으면, 그 의무를 충족하는 원가가 발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O —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에서 별도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⑤ X — 틀린 표현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뒤 상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바꾸어 놓았다. 최초 인식 당시의 회계정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생긴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보조금 문제에서는 인식 단계의 '합리적인 확신', 손익 인식 단계의 '관련 원가와 같은 기간', 표시 단계의 허용되는 대체 방법, 사후 상환 단계의 '회계추정의 변경'을 차례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정부보조금은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하고, 관련 원가와 기간을 맞추며, 사후 상환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4. (주)세무리스는 (주)한국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x2년 10월 1일 생산설비(취득원가 ₩8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를 취득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리스기간은 3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9월 30일에 수령한다. (주)세무리스가 리스료를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면, 동 거래가 20x2년 (주)세무리스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단, 리스와 관련된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고, 리스료와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일자	리스료
20×3년 9월 30일	₩100,000
20×4년 9월 30일	120,000
20×5년 9월 30일	140,000

① (주)세무리스: ₩5,000 증가 / (주)한국: ₩25,000 감소

② (주)세무리스: ₩10,000 증가 / (주)한국: ₩30,000 감소

③ (주)세무리스: ₩25,000 증가 / (주)한국: ₩25,000 감소

④ (주)세무리스: ₩30,000 증가 / (주)한국: ₩30,000 감소

⑤ (주)세무리스: ₩30,000 증가 / (주)한국: ₩50,000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운용리스에서 정액 기준으로 인식할 리스수익·리스비용과 리스제공자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양 당사자의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리스기간은 20x2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총 36개월이다. 총 리스료는 100,000원 + 120,000원 + 140,000원 = 360,000원이다.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으므로 총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인식한다. 20x2년 인식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다. 리스제공자인 (주)세무리스는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도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월 리스료 인식액은 360,000 ÷ 36 = 10,000원이다. 20x2년 리스수익·리스비용은 10,000 × 3 = 30,000원이다. 생산설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000 ÷ 10 = 80,000원이고, 20x2년 감가상각비는 80,000 × 3/12 = 20,000원이다. 지급일별 리스료가 서로 달라도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기준이 없으므로 총액을 36개월에 정액 배분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주)세무리스는 20x2년에 리스수익 30,000원을 인식한다.
2. (주)세무리스는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 20,000원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30,000원 - 20,000원 = 10,000원 증가한다.
3. (주)한국은 20x2년 리스비용 30,000원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30,000원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 세무리스의 5,000원 증가와 한국의 25,000원 감소가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세무리스 10,000원 증가, 한국 30,000원 감소이다.
② O — 세무리스의 순이익 영향은 리스수익 3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20,000원을 뺀 10,000원 증가이고, 한국의 순이익 영향은 리스비용 30,000원 감소이다.
③ X — 세무리스 25,000원 증가와 한국 25,000원 감소가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세무리스 10,000원 증가, 한국 30,000원 감소이다.
④ X — 한국의 30,000원 감소는 맞지만 세무리스의 30,000원 증가는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세무리스 10,000원 증가이다.
⑤ X — 세무리스 30,000원 증가는 감가상각비를 누락했고, 한국 50,000원 감소도 정액 배분액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세무리스 10,000원 증가, 한국 30,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실제 현금 수령일이 20x3년부터라는 이유로 20x2년 리스수익·리스비용을 0원으로 보면 안 된다. 또한 총 리스료를 정액 배분한 30,000원이 세무리스의 순이익 증가액 자체는 아니다. 세무리스는 보유 설비의 3개월 감가상각비 20,000원을 함께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운용리스 정액 인식 문제는 먼저 총 리스료를 전체 리스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고 당기의 사용 개월 수를 곱한다. 그다음 리스제공자는 리스수익에서 기초자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리스이용자는 당기 리스비용만큼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액 리스료는 총액을 전체 기간에 배분하고, 리스제공자의 순이익은 리스수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5. (주)세무는 20x1년 설립이후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x4년 초에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주)세무가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x4년도 재무제표에 비교정보로 공시될 20x3년 매출원가와 20x3년 기말이익잉여금은?

	20×1년	20×2년	20×3년
가중평균법적용 기말재고자산	₩10,000	₩11,000	₩12,000
선입선출법적용 기말재고자산	12,000	14,000	16,000
회계정책 변경 전 매출원가	₩50,000	₩60,000	₩70,000
회계정책 변경 전 기말이익잉여금	100,000	300,000	600,000

① 매출원가: ₩61,000 / 기말이익잉여금: ₩607,000

② 매출원가: ₩61,000 / 기말이익잉여금: ₩604,000

③ 매출원가: ₩69,000 / 기말이익잉여금: ₩599,000

④ 매출원가: ₩69,000 / 기말이익잉여금: ₩604,000

⑤ 매출원가: ₩71,000 / 기말이익잉여금: ₩599,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 20×3년 매출원가와 기말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3년 가중평균법 적용 기초재고는 20×2년 말 재고 11,000원이고, 선입선출법 적용 기초재고는 14,000원이므로 기초재고 증가액은 3,000원이다.
20×3년 기말재고는 가중평균법 12,000원, 선입선출법 16,000원이므로 기말재고 증가액은 4,000원이다.
변경 전 20×3년 매출원가는 70,000원, 기말이익잉여금은 600,0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정 매출원가=기존 매출원가+기초재고 증가액-기말재고 증가액
수정 기말이익잉여금=기존 기말이익잉여금+기말재고 누적 증가액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면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도 처음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 것처럼 수정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3년 수정 매출원가는 70,000원 + 3,000원 - 4,000원 = 69,000원이다.
2. 20×3년 말 재고자산은 새 방법에서 기존보다 4,000원 많으므로 누적이익도 4,000원 증가한다.
3. 수정 기말이익잉여금은 600,000원 + 4,000원 = 60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매출원가 61,000원과 기말이익잉여금 607,000원은 모두 소급수정 공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매출원가 69,000원, 기말이익잉여금 604,000원이다.
② X — 기말이익잉여금 604,000원은 맞지만 매출원가 61,000원이 틀렸다. 매출원가는 70,000원 + 3,000원 - 4,000원 = 69,000원이다.
③ X — 매출원가 69,000원은 맞지만 기말이익잉여금 599,000원이 틀렸다. 기말재고의 누적 증가액 4,000원을 더하여 604,000원으로 수정한다.
④ O — 매출원가 69,000원과 기말이익잉여금 604,000원이 모두 소급수정 결과와 일치한다.
⑤ X — 매출원가 71,000원과 기말이익잉여금 599,000원이 모두 틀렸다. 기초재고 증가액은 더하고 기말재고 증가액은 빼므로 매출원가는 69,000원이며, 기말이익잉여금은 기말재고 증가액을 더한 60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20×3년 매출원가를 수정할 때 20×3년 기말재고 차이만 반영하거나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부호를 뒤집기 쉽다. 또한 기말이익잉여금에는 20×3년 당기 매출원가 감소액 1,000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3년 말 현재 재고자산의 누적 증가액 4,000원을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연도의 매출원가는 해당 연도의 기초재고 차이는 더하고 기말재고 차이는 빼서 수정한다. 비교연도 말 이익잉여금은 그 시점의 기말재고 누적 차이만큼 수정한다.

암기 포인트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증가분을 더하고 기말재고 증가분을 뺀다. 기말이익잉여금은 기말재고 누적 증가분만큼 늘어난다.

NoteBase

문 6. (주)세무는 20x3년 1월 1일 종업원 40명에게 1인당 주식선택권 40개씩 부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향후 3년 동안 (주)세무에 근무해야 가득된다. 20x3년 1월 1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으로 추정되었으며, 행사가격은 단위당 ₩600이다. 각 연도말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 퇴직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면금액 ₩500)을 교부하였다면,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해 증가되는 자본은?

연도 말	주식선택권 단위당 공정가치	실제 퇴직자	추가 퇴직 예상자
20×3	₩300	2명	6명
20×4	400	4	2
20×5	500	1	-

20×6년 초에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50%가 행사되어 ㈜세무가 주식(단위당 액

① ₩66,000

② ₩198,000

③ ₩264,000

④ ₩330,000

⑤ ₩396,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주식선택권 행사 시 현금 유입과 기존 주식선택권 계정의 재분류를 구분하여 자본의 순증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가득된 종업원 수는 최초 40명에서 실제 퇴직자 2명, 4명, 1명을 뺀 33명이다. 1인당 주식선택권은 40개이므로 가득된 수량은 1,320개이고, 이 중 50%인 660개가 행사된다. 행사가격은 1개당 ₩600, 주식의 액면금액은 1주당 ₩500, 부여일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는 1개당 ₩300이다.

사용할 공식

행사수량=33×40×50\%=660개

현금유입=660×₩600=₩396,000

주식선택권 행사 시 기존 주식선택권 계정은 납입자본으로 재분류될 뿐 총자본을 늘리지 않는다. 따라서 행사로 인한 총자본 증가액은 새로 유입된 현금과 같은 ₩396,00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33명 × 40개 = 1,320개이다.
2. 행사된 수량은 1,320개 × 50% = 660개이다.
3. 행사 시 현금 유입액은 660개 × ₩600 = ₩396,000이다.
4. 행사분에 대응하는 주식선택권 계정은 660개 × ₩300 = ₩198,000이고, 발행 주식의 자본금은 660주 × ₩500 = ₩330,000이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396,000 + ₩198,000 - ₩330,000 = ₩264,000이다.
5. 분개는 차변 현금 ₩396,000, 주식선택권 ₩198,000 / 대변 자본금 ₩330,000, 주식발행초과금 ₩264,000이다. 기존 주식선택권 ₩198,000은 자본 내부 대체이므로 총자본의 순증가액은 ₩396,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66,000은 유입 현금 ₩396,000에서 자본금 ₩330,000만 뺀 금액으로, 기존 주식선택권 ₩198,000의 재분류를 빠뜨린 값이다. 행사로 증가하는 총자본은 ₩396,000이다.
② X — ₩198,000은 행사분에 대응하여 주식선택권 계정에서 다른 납입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이다. 자본 내부 대체액이지 총자본 증가액이 아니며, 총자본 증가액은 ₩396,000이다.
③ X — ₩264,000은 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이다. 문제에서 묻는 총자본 증가액은 주식발행초과금만이 아니라 자본금 증가까지 포함한 ₩396,000이다.
④ X — ₩330,000은 발행 주식 660주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금 증가액이다. 총자본 증가액은 자본금만이 아니라 자본 전체의 순증가액인 ₩396,000이다.
⑤ O — 행사대금으로 현금 ₩396,000이 새로 유입되고 기존 주식선택권 계정의 대체는 총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행사로 인한 총자본 증가액은 ₩396,000이다.

오답 포인트

₩198,000은 주식선택권 계정의 대체액, ₩330,000은 자본금 증가액, ₩264,000은 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이다. 이 세 금액을 총자본 증가액과 혼동하기 쉽다. 주식선택권 계정은 이미 자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사 시 다른 자본 항목으로 옮겨도 총자본은 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가득 수량과 행사 수량을 구한 뒤, 행사대금의 현금 유입과 기존 자본 항목의 재분류를 나눈다. 총자본 증가액을 물으면 자본 내부 대체는 제외하고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행사대금만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주식선택권 행사 시 총자본의 순증가액은 행사수량 × 행사가격이다. 기존 주식선택권은 자본 안에서 이동할 뿐이다.

NoteBase

문 7. (주)세무리스는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과 해지불능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예상 잔존가치 ₩100,000 중 일부를 보증함 (주)한국이 동 리스와 관련하여 보증한 잔존가치는? (단, 기간 5년, 할인율 연 10%일 때, 단위금액 ₩1의 현재가치 계수는 0.6209,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계수는 3.7908이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리스자산 :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감가상각
◯ 리스기간 : 리스기간개시일(20x1년 1월 1일)부터 5년
◯ 연간리스료 : 매년 12월 31일 지급
◯ 리스개설직접원가 : (주)세무리스와 (주)한국 모두 없음
◯ 내재이자율 : 연 10%, (주)한국은 (주)세무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 (주)세무리스는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채권으로 ₩19,016,090(리스기간개시일의 리스자산 공정가치와 동일)을 인식함
◯ (주)한국은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자산으로 ₩18,991,254를 인식함
◯ 특약사항 : 리스기간 종료시 반환조건이며, (주)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

① ₩18,955
② ₩40,000
③ ₩60,000
④ ₩81,045
⑤ ₩1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과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측정액 차이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구한 뒤, 전체 잔존가치에서 무보증잔존가치를 빼 보증잔존가치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19,016,090원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18,991,254원
5년 후 잔존가치 1원의 현재가치계수: 0.6209
전체 예상 잔존가치: 100,000원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양쪽 모두 없으므로 두 측정액의 차이는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에 해당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리스채권-리스자산
무보증잔존가치=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현재가치계수
보증잔존가치=전체 예상 잔존가치-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에는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가 포함되지만 리스이용자의 측정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차이를 이용한다.

계산 과정

1.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는 19,016,090원 - 18,991,254원 = 24,836원이다.
2. 무보증잔존가치는 24,836원 $\div 0.6209 = 40,000$원이다.
3. 보증잔존가치는 100,000원 - 40,000원 = 6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18,955원은 두 측정액의 차이도, 그 차이를 현재가치계수로 환산한 금액도 아니다. 보증잔존가치는 60,000원이다.
② X. 40,000원은 보증잔존가치가 아니라 무보증잔존가치이다. 보증잔존가치는 전체 100,000원에서 이를 뺀 60,000원이다.
③ O. 전체 예상 잔존가치 100,000원에서 무보증잔존가치 40,000원을 빼면 보증잔존가치는 60,000원이다.
④ X. 81,045원은 무보증잔존가치 40,000원을 차감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보증잔존가치는 60,000원이다.
⑤ X. 100,000원은 전체 예상 잔존가치이며 그 전부가 보증된 것이 아니다. 무보증 부분 40,000원을 제외한 60,000원이 보증잔존가치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40,000원은 계산 과정에서 먼저 구해지는 무보증잔존가치이다. 문제는 보증잔존가치를 묻고 있으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체 예상 잔존가치 100,000원에서 40,000원을 빼야 한다. 또한 현재가치 24,836원을 미래의 잔존가치로 되돌릴 때에는 0.6209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최초 측정액 차이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찾고, 현재가치계수로 나누어 무보증잔존가치를 구한 다음, 전체 잔존가치에서 차감하여 보증잔존가치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측정액 차이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현재가치계수로 나누기 → 무보증잔존가치, 전체 잔존가치에서 빼기 → 보증잔존가치이다.

NoteBase

문 8.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에 (주)한국이 발행한 채권을 ₩927,910에 취득하였다. 동 채권의 액면금액은 ₩1,000,000, 표시이자율은 연 10%(매년 말 지급)이며,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다. 20x1년 말 동 채권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990,000이며, (주)세무는 20x2년 3월 31일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1,020,000에 동 채권을 처분하였다. (주)세무의 동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채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없다.)

①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x1년 말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990,000으로 동일하다.

②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162,090 증가한다.

③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x1년 총포괄손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④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x2년 당기순이익은 ₩75,741 증가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채무상품을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이자수익, 공정가치 변동, 처분손익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927,910원, 액면금액은 1,000,000원, 연간 표시이자는 100,000원,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20x1년 말 이자 수취 후 공정가치는 990,000원이다. 20x2년 3월 31일 처분대금 1,020,000원에는 3개월분 발생이자 2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제외한 처분가액은 995,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유효이자수익은 기초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유효이자수익=기초 상각후원가×유효이자율
할인차금 상각액은 유효이자수익에서 표시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처분 전까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며 처분 시 누적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유효이자수익은 927,910 × 12% = 111,349원이 된다. 표시이자 100,000원을 차감한 할인차금 상각액은 11,349원이므로 20x1년 말 상각후원가는 939,259원이다.
2. 20x1년 말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990,000 − 939,259 = 50,741원이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20x1년 당기손익 증가는 111,349 + 50,741 = 162,090원이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기손익 111,349원과 기타포괄이익 50,741원으로 총포괄손익이 162,090원 증가한다.
3. 20x2년 3개월분 표시이자는 1,000,000 × 10% × 3/12 = 25,000원이다. 따라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 시 당기손익 증가는 1,020,000 − 990,000 = 30,000원이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20x2년 유효이자수익은 939,259 × 12% × 3/12 = 28,178원이다. 3개월분 할인차금 상각액은 28,178 − 25,000 = 3,178원이고, 처분 직전 상각후원가는 942,437원이다. 이자를 제외한 처분가액 995,000원과의 차이인 52,563원이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28,178 + 52,563 = 80,741원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O. 두 분류 모두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금융자산은 990,000원으로 표시된다.
② O. 단기매매금융자산은 20x1년 유효이자수익 111,349원과 공정가치평가이익 50,741원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62,090원 증가한다.
③ O. 단기매매금융자산은 162,090원 전액이 당기손익이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기손익 111,349원과 기타포괄이익 50,741원으로 나뉠 뿐 총포괄손익 증가액은 모두 162,090원이다.
④ O. 단기매매금융자산의 20x2년 처분대금과 전기 말 장부금액의 차이는 1,020,000 − 990,000 = 30,0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이 30,000원 증가한다.
⑤ X. '75,741원 증가'가 틀린 표현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20x2년 유효이자수익 28,178원과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52,563원을 합하면 당기순이익은 80,741원 증가한다. 올바르게는 '20x2년 당기순이익은 80,741원 증가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75,741원은 3개월분 표시이자 25,000원과 전기 말 누적 기타포괄이익 50,741원만 더한 값이다. 처분 전까지 추가로 발생한 할인차금 상각과 공정가치 변동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처분연도 당기손익은 80,741원이다. 또한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을 혼동하면 ②와 ③을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와 이자수익을 계산하고, 공정가치 변동이 단기매매금융자산에서는 당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는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한다. 처분연도에는 발생이자가 포함된 처분대금인지 확인한 뒤 누적 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까지 반영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단기매매는 공정가치 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매도가능은 처분 전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한 뒤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NoteBase

문 9. 전환사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② 전환조건이 변경되면 발행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만기 이전에 지분증권으로 전환하는 권리인 전환권 특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④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다.

⑤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전환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 발행 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어떻게 분리하고, 발행 후 전환 가능성의 변화가 최초 분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는 하나의 계약에 원리금 상환의무인 부채요소와 일정한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본요소가 함께 있는 금융상품이다. 발행자는 최초 인식할 때 두 요소를 분리하며, 이후 전환권 행사 가능성이 변하더라도 최초의 부채·자본 분류를 다시 수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발행자는 전환사채가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하면 최초 인식 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② O — 보유자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변경된 조건에 따른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에 따른 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를 조건 변경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O — 취득자는 만기 전에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도 대가를 지급하므로, 원금과 이자만을 만기까지 회수하는 일반적인 만기보유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④ O —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발행대가의 비율에 따라 각 요소에 배분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분류를 수정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전환권 행사 가능성이 변하더라도 최초에 정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면 자본요소가 커져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부채·자본 분류는 보고기간마다 행사 가능성을 다시 추정하여 바꾸는 항목이 아니다. ⑤의 '분류를 수정한다'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 문제에서는 최초 인식 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는지, 거래원가도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지, 이후 전환 가능성만의 변화로 최초 분류를 바꾸지 않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최초에는 부채·자본을 분리하고, 가능성이 바뀌어도 분류는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10.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원가가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동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이때, 거래원가는 운송원가를 포포함하지 않는다.

② 부채의 현행원가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외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④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

⑤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관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역사적 원가·현행원가·공정가치·거래가격의 의미와 공정가치 측정에서 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역사적 원가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가격에 기초하는 측정기준이고,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데 드는 금액에 기초하는 측정기준이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 자체의 특성이 아니므로 공정가치에서 조정하지 않지만, 자산의 위치가 그 자산의 특성이라면 주된 시장까지의 운송원가는 시장가격에서 조정한다.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유입가격이고,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유출가격이라는 차이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해야 한다'이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므로 공정가치 측정 시 주된 시장의 가격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거래원가는 조정하지 않으며, 자산의 위치가 그 자산의 특성인 경우 운송원가를 조정한다고 해야 한다. 거래원가에 운송원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 자체는 옳다.
② O -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③ O - 자산의 역사적 원가는 취득 당시 지급한 현금·현금성자산 또는 그 밖에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에 기초한다.
④ O - 교환거래의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하는 가격 또는 부채를 인수할 때 받는 가격이므로 유입가격에 해당한다.
⑤ O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는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최소한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한꺼번에 가격 조정 항목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서 조정하지 않고, 자산의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의 운송원가만 조정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정가치 측정에서 비용의 조정 여부가 나오면 먼저 그 비용이 자산이나 부채 자체의 특성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거래 성사에 드는 거래원가는 조정하지 않고, 자산의 현재 위치와 관련된 운송원가는 해당 위치가 자산의 특성일 때 조정한다.

암기 포인트

공정가치 가격 조정은 '거래원가 제외, 위치가 특성이면 운송원가 반영'으로 구분한다.

NoteBase

문 11. (주)세무의 20x6년 당기순이익은 ₩2,450,000이며,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800주이다. 20x6년 9월 1일 주주우선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0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이때 발행금액은 주당 ₩40,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종가는 주당 ₩60,000이다. (주)세무의 20x6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① ₩1,167

② ₩1,225

③ ₩1,250

④ ₩1,289

⑤ ₩1,321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에 무상증자 요소가 포함된 경우 권리락 전 주식수에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 2,450,000원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1,800주
9월 1일 유상증자 주식수: 300주
발행가액: 주당 40,000원
유상증자 직전 종가: 주당 60,000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하며, 1월부터 8월까지는 8개월, 9월부터 12월까지는 4개월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이론적 권리락 주가:
(1,800×60,000)+(300×40,000)2,100=57,142.857원

조정계수:
$\frac{60,000}{57,142.857} = 1.05$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발행가액이 유상증자 직전 종가보다 낮으므로 무상증자 요소가 있다. 따라서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리락 전 유통주식수에 조정계수를 소급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권리락 전 8개월의 조정 주식수는 1,800 × 1.05 = 1,890주이다.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890×(8)/(12)+2,100×(4)/(12)=1,260+700=1,960주
3. 기본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2,450,0001,960=1,250원

선지 판단

① X — 1,167원은 증자 후 2,100주를 연중 유통된 것으로 잘못 보아 2,450,000 ÷ 2,100으로 계산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유통기간과 무상증자 요소를 반영한 1,250원이다.
② X — 1,225원은 올바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960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1,250원이다.
③ O — 조정계수 1.05와 월할계산을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960주이고, 기본주당순이익은 1,250원이다.
④ X — 1,289원은 무상증자 요소를 조정하지 않고 1,800 × 8/12 + 2,100 × 4/12 = 1,900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권리락 전 주식수에 조정계수 1.05를 적용하여 1,250원이다.
⑤ X — 1,321원은 올바른 조정계수와 월할계산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1,25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할인발행된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를 단순한 기중 유상증자로만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④는 증자 전후 주식수만 월할계산하고 무상증자 요소에 따른 조정계수 1.05를 누락하면 나오는 오답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직전 공정가치보다 낮으면 먼저 이론적 권리락 주가와 조정계수를 구한다. 그다음 권리락 전 주식수에는 조정계수를 소급 적용하고, 증자 전후 기간을 월할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된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는 '권리락 전 주식수 × 조정계수, 그 후 기간가중'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12. (주)세무는 (주)한국이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만기보유 목적으로 20x6년 10월 1일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취득금액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채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6년에 인식할 이자수익 금액과 20x6년 말 인식할 금융자산 장부금액의 합계액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액면금액	₩1,000,000	발행일	20×6년 7월 1일
표시이자율	연 8%	만기일	20×9년 6월 30일
발행일 유효이자율	연 10%	이자지급일	매년 6월 30일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1	0.9259	0.9091	0.9259	0.9091
2	0.8573	0.8264	1.7833	1.7355
3	0.7938	0.7513	2.5771	2.4869

① ₩981,521

② ₩977,765

③ ₩990,765

④ ₩1,020,000

⑤ ₩1,023,756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취득할 때 취득금액에 포함된 경과이자를 분리하고, 취득 후 보유기간의 유효이자수익과 기말 금융자산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원이고 표시이자율과 취득시점 유효이자율은 모두 연 8%이다. 이자는 매년 6월 30일 지급되며, 취득일은 20x6년 10월 1일이다. 취득금액에는 20x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분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20x6년 이자수익은 취득 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분만 인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경과이자 = 액면금액 × 표시이자율 × 경과기간
이자수익 = 사채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 보유기간
기말 사채 장부금액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수익 - 발생한 표시이자

표시이자율과 취득시점 유효이자율이 모두 8%이므로 사채의 경과이자 제외 가격은 액면금액과 같은 1,000,000원이다. 같은 기간의 유효이자와 표시이자가 일치하므로 할인·할증의 상각도 발생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1. 취득금액에 포함된 경과이자는 $1{,}000{,}000 \times 8\% \times \frac{3}{12} = 20{,}000$원이므로 총 지급액은 1,020,000원이지만,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경과이자를 제외한 1,000,000원이다.
2. 취득 후 3개월의 이자수익은 $1{,}000{,}000 \times 8\% \times \frac{3}{12} = 20{,}000$원이다. 취득 전 3개월분 경과이자 20,000원은 이자수익이 아니라 회수할 미수이자이다.
3. 취득 후 발생한 표시이자 20,000원과 유효이자수익 20,000원이 같으므로 20x6년 말 사채 장부금액은 $1{,}000{,}000 + 20{,}000 - 20{,}000 = 1{,}000{,}000$원이다.
4. 요구한 합계는 20,000원 + 1,000,000원 = 1,02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981,521원은 계산된 합계 1,020,000원과 다르다. ‘981,521원’은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합계는 1,020,000원이다.
② X — 977,765원은 취득시점 유효이자율 8%와 취득 후 3개월이라는 조건을 적용한 값이 아니다. ‘977,765원’은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합계는 1,020,000원이다.
③ X — 990,765원은 경과이자를 이자수익에서 분리하고 사채 장부금액을 1,000,000원으로 유지한 결과와 다르다. ‘990,765원’은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합계는 1,020,000원이다.
④ O — 20x6년 이자수익 20,000원과 20x6년 말 사채 장부금액 1,000,000원의 합계가 1,020,000원이다.
⑤ X — 1,023,756원은 계산된 합계보다 3,756원 많다. ‘1,023,756원’은 틀린 금액이며, 올바른 합계는 1,02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취득금액 1,020,000원 전부를 사채 장부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 그중 취득 전 3개월분 경과이자 20,000원은 매도인에게 대신 지급한 미수이자로 분리한다. 또한 발행시점 유효이자율 10%가 아니라 취득시점 유효이자율 8%를 적용해야 하며, 20x6년 이자수익은 취득 후 3개월분만 인식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도 취득 사채는 먼저 취득금액에서 취득 전 경과이자를 분리하고, 사채 장부금액에 취득시점 유효이자율과 실제 보유기간을 적용한다. 표시이자율과 취득 유효이자율이 같으면 경과이자 제외 가격은 액면금액이고 할인·할증 상각은 없다.

암기 포인트

중도 취득의 경과이자는 이자수익이 아니며, 표시이자율과 취득 유효이자율이 같으면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이다.

NoteBase

문 13. 20x5년에 설립한 (주)세무는 (주)한국과 건설기간 3년, 계약금액 ₩1,000,000인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점인 20x7년까지는 동 공사만 진행하였다. (주)세무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x6년과 20x7년에 인식할 당기 공사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취득한 건설자재는 동 건설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5년	20×6년	20×7년
당기 건설자재 취득원가	₩90,000	₩100,000	₩50,000
기말 미사용 건설자재	10,000	40,000	40,000
당기 건설노무원가	120,000	140,000	250,000
당기 건설장비 감가상각비	10,000	12,000	18,000
추정총계약원가	700,000	720,000	-

① 20x6년: ₩74,111 / 20x7년: ₩69,222

② 20x6년: ₩74,111 / 20x7년: ₩85,889

③ 20x6년: ₩78,000 / 20x7년: ₩82,000

④ 20x6년: ₩78,000 / 20x7년: ₩84,000

⑤ 20x6년: ₩78,000 / 20x7년: ₩85,889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진행기준에서 기말 미사용 건설자재를 발생계약원가와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누적 공사이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이익을 차감하여 당기 공사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계약금액은 1,000,000원이다. 별도로 제작된 자재가 아니므로 기말 미사용 자재는 아직 공사 수행에 투입되지 않은 재고이며, 발생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20×5년 발생계약원가: (90,000원 - 10,000원) + 120,000원 + 10,000원 = 210,000원

20×6년 당기 재료사용액: 기초 미사용 자재 10,000원 + 당기 취득액 100,000원 - 기말 미사용 자재 40,000원 = 70,000원

20×6년 당기 발생계약원가: 70,000원 + 140,000원 + 12,000원 = 222,000원

NoteBase

사용할 공식

진행률=(누적발생계약원가)/(추정총계약원가)
누적공사이익=(계약금액× 진행률)-누적발생계약원가
당기공사이익=기말누적공사이익-기초누적공사이익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진행률을 측정한다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20×5년 진행률은 $210,000/700,000 = 30\%$이고, 누적 공사수익은 300,000원이다. 따라서 20×5년 누적 공사이익은 300,000원 - 210,000원 = 90,000원이다.
2. 20×6년 누적발생계약원가는 210,000원 + 222,000원 = 432,000원이고, 진행률은 $432,000/720,000 = 60\%$이다. 누적 공사수익은 600,000원, 누적 공사이익은 600,000원 - 432,000원 = 168,000원이므로 20×6년 당기 공사이익은 168,000원 - 90,000원 = 78,000원이다.
3. 20×7년 재료사용액은 40,000원 + 50,000원 - 40,000원 = 50,000원이고, 당기 발생계약원가는 50,000원 + 250,000원 + 18,000원 = 318,000원이다. 완공 시 총계약원가는 432,000원 + 318,000원 = 750,000원이므로 총공사이익은 1,000,000원 - 750,000원 = 250,000원이다. 따라서 20×7년 당기 공사이익은 250,000원 - 168,000원 = 82,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20×6년 74,111원과 20×7년 69,222원은 계산 결과와 모두 다르다. 올바르게는 각각 78,000원과 82,000원이다.
② X. 20×6년 74,111원과 20×7년 85,889원은 계산 결과와 모두 다르다. 올바르게는 각각 78,000원과 82,000원이다.
③ O. 20×6년 당기 공사이익 78,000원과 20×7년 당기 공사이익 82,000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④ X. 20×6년 78,000원은 맞지만 20×7년 84,000원이 틀리다. 20×7년에는 완공 시 총공사이익 250,000원에서 전기까지의 누적 공사이익 168,000원을 차감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82,000원이다.
⑤ X. 20×6년 78,000원은 맞지만 20×7년 85,889원이 틀리다. 20×7년 당기 공사이익의 올바른 금액은 82,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 미사용 자재를 취득 즉시 발생계약원가에 넣거나, 20×6년의 누적 공사이익 168,000원을 당기 공사이익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미사용 자재는 재료사용액에서 빼고, 당기 공사이익은 반드시 당기 말 누적 공사이익에서 전기 말 누적 공사이익을 차감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초 미사용 자재 + 당기 취득액 - 기말 미사용 자재로 당기 재료사용액을 구한다. 이어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진행률과 누적 공사이익을 계산한 뒤, 전기 누적액을 차감하여 당기 공사이익을 확정한다. 완공연도에는 계약금액에서 실제 총계약원가를 뺀 총공사이익으로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미사용 자재는 원가 진행률에서 제외하고, 당기 이익은 누적 이익의 당기 증가분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14.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매년 말 재평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정가치의 하락은 자산손상과 무관하다.)

연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공정가치	₩100,000	₩63,000	₩39,000

① 20x2년도 감가상각비는 ₩25,000이다.

② 동 거래로 인한 20x2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0,000이다.

③ 20x2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0이다.

④ 20x3년 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3,000이다.

⑤ 동 거래로 인한 20x3년도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1,0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에서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액, 재평가감소액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배분을 연도별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이다. 공정가치는 20×1년 말 100,000원, 20×2년 말 63,000원, 20×3년 말 39,000원이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사용에 따른 초과감가상각액만큼 매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동일 자산의 재평가감소액은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재평가된 장부금액-잔존가치잔여내용연수로 계산한다. 이익잉여금 대체액은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원가모형상 감가상각비이다. 재평가감소액은 먼저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과 상계하고, 초과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된 금액을 새 장부금액으로 삼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비는 100,000원÷5년=20,000원이고,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80,000원이다. 공정가치 100,000원으로 올리므로 재평가잉여금 20,000원이 생긴다.
2. 20×2년 감가상각비는 100,000원÷4년=25,000원이다. 원가모형상 감가상각비 20,000원과의 차이 5,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므로 재평가잉여금은 15,000원이 된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75,000원을 공정가치 63,000원으로 낮추는 재평가감소액 12,000원은 전액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당기손익은 0원이고, 재평가잉여금은 3,000원이 남는다.
3. 20×3년 감가상각비는 63,000원÷3년=21,000원이다. 원가모형상 감가상각비와의 차이 1,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재평가잉여금은 2,000원이 남는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42,000원을 공정가치 39,000원으로 낮추는 재평가감소액 3,000원 중 2,000원은 재평가잉여금에서 차감하고, 초과액 1,000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0×2년에 -25,000원+5,000원=-20,000원이고, 20×3년에 -21,000원-1,000원+1,000원=-21,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20×1년 말 재평가액 100,000원을 잔여내용연수 4년으로 나누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25,000원이다.
② O. 20×2년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 -25,000원과 재평가잉여금 대체액 +5,000원을 합하면 이익잉여금의 당기 변동분은 -20,000원이다.
③ O. 20×2년 말 재평가감소액 12,000원은 당시 재평가잉여금 15,000원 범위 안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0원이다.
④ X.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은 3,000원'이 틀렸다. 20×3년 말 재평가감소액 3,000원 중 남은 재평가잉여금 2,000원을 먼저 차감하므로, 올바른 당기손익 재평가손실은 1,000원이다.
⑤ O. 20×3년에는 감가상각비 21,000원과 당기손익 재평가손실 1,000원으로 이익잉여금이 22,000원 감소하고, 재평가잉여금 대체액 1,000원으로 다시 증가하므로 순변동은 -21,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20×3년 말 재평가감소액 3,000원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게 유도한다. 그러나 같은 자산에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2,000원을 먼저 차감해야 하므로 당기손익 손실은 1,000원뿐이다. ⑤에서는 이 당기손익 손실 1,000원과 재평가잉여금 대체액 1,000원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별로 기초 재평가 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고, 초과감가상각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뒤, 결산 공정가치와 비교한다. 재평가감소액은 남은 재평가잉여금부터 차감하고 초과액만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재평가감소는 잉여금 우선, 초과분만 당기손익이다. 이익잉여금 변동은 당기손익과 잉여금 대체를 함께 반영한다.

NoteBase

문 15. 지분법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한다.

②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업은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④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지분법의 최초 인식, 취득 후 손익 반영, 적용 중단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사이의 지위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이후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 지분을 투자자산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이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사이에서 투자 형태만 바뀌고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유지되면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한다.
② O — 취득일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 지분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고 투자자산 장부금액에도 반영한다.
③ O —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지분법 적용을 중단한다.
④ O — 지분법을 중단할 때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했을 때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한다'이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지분법 적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와 관계기업·공동기업 사이에서 투자 형태만 바뀌는 경우를 혼동하기 쉽다. ⑤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잔여 지분을 재측정한다고 서술한 것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경 후에도 투자대상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둘 사이의 지위 변경이면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고 재측정하지 않으며,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분법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를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관계기업↔공동기업: 지분법 계속, 잔여 지분 재측정 없음.

NoteBase

문 1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②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 중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다.

③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④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⑤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정의,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상품의 재분류 및 최초 측정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 등에 해당한다. 금융부채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교환할 계약상 의무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할 때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르면 거래가격을 그대로 최초 측정액으로 삼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지정은 최초 인식 시점에 이루어지며, 최초 인식 후 다른 금융상품을 새로 이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② O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비파생상품 중 기업이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계약은 금융자산의 정의에 포함된다.
③ O — 기존 채무상품을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교환하거나 금융부채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이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르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최초 측정하고 그 차이는 공정가치의 객관적 근거에 따라 처리한다.
⑤ O — 거래상대방과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할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거래가격이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 공정가치와 같다는 점을 '항상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로 바꾸어 놓은 ④의 단정이 함정이다.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실제로 다르다고 제시되면 최초 측정의 기준은 공정가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상품의 최초 측정 문제에서는 먼저 공정가치 원칙을 확인한다.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의 통상적 증거일 뿐이며, 두 금액이 다르다는 조건이 있으면 거래가격을 그대로 쓰는지 여부가 아니라 공정가치의 산정 근거와 차이의 처리 방식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최초 측정은 공정가치, 거래가격은 보통의 증거이다.

NoteBase

문 17. (주)세무는 20x3년부터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판매한 제품 중 5%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세무는 제품보증활동에 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한다. 개당 보증비용은 20x3년 말과 20x4년 말에 각각 ₩1,200과 ₩1,500으로 추정되었다.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4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 지출로 이루어진다.)

연도	판매량	보증비용 지출액
20×3년	600개	₩15,000
20×4년	800개	₩17,000(전기 판매분) ₩30,000(당기 판매분)

① ₩26,000

② ₩30,000

③ ₩34,000

④ ₩37,500

⑤ ₩40,5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1년 무상보증에 대해 당기 판매분의 예상 제품보증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당기 판매분에 실제로 지출한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기말 잔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4년 판매량 800개, 예상 보증요청률 5%, 개당 보증비용 ₩1,500, 20×4년 판매분 보증비용 지출액 ₩30,000이다.
구해야 할 값: 20×4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이다.
주의할 조건: 보증기간은 1년이므로 20×3년 판매분의 보증의무는 20×4년 말까지 종료된다. 따라서 20×3년 판매분과 20×4년 판매분을 구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 판매분 예상 보증비용=판매량×예상 보증요청률×개당 보증비용
기말 충당부채=당기 판매분 예상 보증비용-당기 판매분 실제 지출액
제품 판매와 함께 보증의무가 발생하고 보증활동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판매 시점에 예상 보증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한 뒤 실제 보증지출만큼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20×3년 판매분의 최초 예상 보증비용은 600개×5\%×₩1,200=₩36,000이다. 20×3년에 ₩15,000을 지출했으므로 20×3년 말 잔액은 ₩21,000이다.
2. 20×4년에 20×3년 판매분에 대해 ₩17,000을 지출하면 ₩4,000이 남지만, 1년의 보증기간이 끝나므로 이 잔액은 환입되어 20×4년 말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20×4년 판매분의 예상 보증비용은 800개×5\%×₩1,500=₩60,000이다.
4. 이 중 20×4년에 실제 지출한 ₩30,000을 차감하면 기말 충당부채는 ₩60,000 − ₩30,000 = ₩3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26,000은 계산된 기말 충당부채 ₩30,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26,000 → 올바른 금액은 ₩30,000이다.
② O — 20×4년 판매분의 예상 보증비용 ₩60,000에서 당기 판매분 지출액 ₩30,000을 차감한 ₩30,000과 일치한다.
③ X — ₩34,000은 보증기간이 끝난 20×3년 판매분의 잔액 ₩4,000을 당기 잔액에 더한 금액이다. 틀린 금액 ₩34,000 → 올바른 금액은 ₩30,000이다.
④ X — ₩37,500은 당기 판매분의 예상 보증비용과 실제 지출액을 반영한 잔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37,500 → 올바른 금액은 ₩30,000이다.
⑤ X — ₩40,500은 당기 판매분의 예상 보증비용 ₩60,000에서 당기 판매분 지출액 ₩30,000을 차감한 결과가 아니다. 틀린 금액 ₩40,500 → 올바른 금액은 ₩30,000이다.

오답 포인트

20×3년 말 충당부채 ₩21,000이나 그중 20×4년 지출 후 남은 ₩4,000을 20×4년 말 부채에 계속 포함하는 것이 함정이다. 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전기 판매분의 의무는 종료되고, 기말에는 20×4년 판매분의 미지출 예상액 ₩30,000만 남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판매연도별로 예상 보증비용과 실제 지출액을 나누고, 먼저 보증기간이 끝난 판매분의 잔액을 제거한 뒤 아직 보증의무가 남은 판매분의 예상액에서 그 판매분의 실제 지출액을 차감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아직 보증기간이 남은 판매분의 예상 보증비용 중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다.

NoteBase

문 18. 20x1년 말 (주)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말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 사용이 제한된 것은 없다.)

(1) (주)세무의 실사 및 조회자료
◯ 소액현금: ₩100,000
◯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 ₩200,000
◯ 수입인지: ₩100,000
◯ 양도성예금증서(만기 20x2년 5월 31일): ₩200,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100,000
◯ 우표: ₩100,000
◯ 차용증서: ₩300,000
◯ 은행이 발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 금액: ₩700,000
(2) (주)세무와 은행 간 당좌예금잔액 차이 원인
◯ 은행이 (주)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액: ₩50,000
◯ 은행이 (주)세무에 통보하지 않은 은행수수료: ₩100,000
◯ (주)세무가 당해연도 발행했지만 은행에서 미인출된 수표: ₩200,000
◯ 마감시간 후 입금으로 인한 은행미기입예금: ₩300,000

① ₩1,050,000
② ₩1,200,000
③ ₩1,300,000
④ ₩1,350,000
⑤ ₩1,4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 내고, 은행잔액증명서의 당좌예금 잔액에 은행미기입예금과 미인출수표를 반영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현금 포함 항목: 소액현금 100,000원,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 200,000원, 타인발행당좌수표 100,000원이다.
현금 제외 항목: 수입인지, 우표, 차용증서, 만기가 20x2년 5월 31일인 양도성예금증서이다.
당좌예금은 은행잔액증명서 금액 700,000원에 은행미기입예금 300,000원을 더하고 미인출수표 200,000원을 뺀다. 은행의 매출채권 추심액과 은행수수료는 은행잔액에는 이미 반영된 장부 측 조정항목이므로 은행잔액을 출발점으로 할 때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조정된 당좌예금 = 은행잔액증명서 금액 + 은행미기입예금 - 미인출수표
현금및현금성자산 = 조정된 당좌예금 + 소액현금 + 만기 도래 공채이자표 + 타인발행당좌수표
은행잔액증명서 금액을 실제 당좌예금으로 조정한 뒤, 별도로 보유한 현금 항목을 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조정된 당좌예금은 7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
2. 별도 현금 항목은 1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이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00,000원 + 400,000원 = 1,2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1,050,000원은 은행미기입예금 300,000원을 더하고 미인출수표 200,000원을 빼서 당좌예금을 800,000원으로 조정한 뒤 현금 항목 400,000원을 합한 결과와 다르다. 올바른 금액은 1,200,000원이다.
② O — 조정된 당좌예금 800,000원과 별도 현금 항목 400,000원의 합계가 1,200,000원이므로 옳다.
③ X — 1,300,000원은 정답보다 100,000원 많다. 수입인지와 우표는 현금이 아니므로 포함할 수 없으며, 올바른 금액은 1,200,000원이다.
④ X — 1,350,000원은 정답보다 150,000원 많다. 은행의 매출채권 추심액 50,000원은 은행잔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더하지 않고, 수입인지나 우표도 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200,000원이다.
⑤ X — 1,400,000원은 정답보다 200,000원 많다. 만기가 20x2년 5월 31일인 양도성예금증서 200,000원은 이 문항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2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은행잔액증명서 금액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은행의 매출채권 추심액이나 은행수수료를 다시 반영하면 이중 조정이 된다. 또한 수입인지·우표·차용증서를 현금으로 보거나, 만기가 충분히 짧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성자산에 포함하는 것도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은행잔액을 은행 측 조정항목인 은행미기입예금과 미인출수표로 조정한다. 다음으로 소액현금·만기 도래 이자표·타인발행당좌수표만 더하고, 우표·수입인지·차용증서와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은행잔액 기준 조정은 미기입예금은 더하고 미인출수표는 뺀다. 우표·수입인지·차용증서는 현금이 아니다.

NoteBase

문 19.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200,000,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사채(매년 말에 액면금액 ₩400,000씩을 상환하는 연속상환사채)를 발행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연 6%,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59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① ₩678,196

② ₩778,196

③ ₩788,888

④ ₩795,888

⑤ ₩8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연속상환사채의 발행가액을 각 연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구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1년 차 말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200,000원이고 매년 말 400,000원씩 3회 상환한다. 표시이자율은 연 5%이므로 현금이자는 남아 있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년 차 60,000원, 2년 차 40,000원, 3년 차 20,000원이다. 유효이자율은 연 6%이며, 20x1년 말에는 현금이자 60,000원 지급과 원금 400,000원 상환을 모두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발행가액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발행가액=460,000(0.9434)+440,000(0.8900)+420,000(0.8396)
기말 장부금액은 다음 관계로 계산한다.
기말 장부금액=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현금이자-상환 원금
할인발행된 사채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만기별 현금흐름은 각각 460,000원, 440,000원, 420,000원이므로 발행가액은 433,964원 + 391,600원 + 352,632원 = 1,178,196원이다.
2. 20x1년 유효이자는 1,178,196원 × 6% = 70,691.76원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0,692원이다.
3. 할인차금 상각액은 70,692원 - 60,000원 = 10,692원이다.
4. 20x1년 말 장부금액은 1,178,196원 + 10,692원 - 400,000원 = 788,888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678,196원은 1년 차 유효이자에 따른 할인차금 상각액 10,692원을 반영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500,000원을 차감한 값이다. 올바른 장부금액은 788,888원이다.
② X — 778,196원은 발행가액에서 상환 원금 400,000원만 차감하여 할인차금 상각액 10,692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발행가액에 할인차금 상각액을 더한 뒤 원금을 차감하여 788,888원이 된다.
③ O — 1,178,196원 + 70,692원 - 60,000원 - 400,000원 = 788,888원이므로 옳다.
④ X — 795,888원은 유효이자 70,692원에서 현금이자 60,000원을 뺀 할인차금 상각액 10,692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장부금액은 788,888원이다.
⑤ X — 800,000원은 1회 상환 후 남은 액면금액일 뿐 장부금액이 아니다. 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올바른 장부금액은 788,888원이다.

오답 포인트

연속상환사채는 매년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며, 현금이자는 각 기간에 남아 있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특히 ②처럼 원금만 차감하고 할인차금 상각액을 빠뜨리거나, ⑤처럼 남은 액면금액을 장부금액으로 보는 오류를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도별 현금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합쳐 발행가액을 구한다. 이후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현금이자와 상환 원금을 차감하여 기말 장부금액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 연속상환사채의 기말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 + 할인차금 상각액 - 상환 원금이다.

NoteBase

문 20. 차입원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되,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기간 내에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②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④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적격자산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산정 방법, 자본화 대상 지출액, 자본화의 중단·종료 시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이다. 특정차입금은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그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하지만, 일반차입금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가중평균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일시적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는 부분이다. 투자수익 차감은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적용한다. 일반차입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O -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아직 사용·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은 적격자산을 위한 특정차입금은 그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O - 적격자산 관련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한 금액은 기업이 실제 부담한 지출을 줄이므로 적격자산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④ O -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이 장기간 중단된 기간에는 그 기간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고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O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특정차입금에만 적용되는 일시적 투자수익 차감 규정을 일반차입금에도 적용한 것이 함정이다. 또한 ④의 중단은 일시적인 기술·행정 작업이나 필수적인 중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발활동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차입금이 특정차입금인지 일반차입금인지 구분한다. 특정차입금이면 실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투자수익을 차감하고, 일반차입금이면 적격자산 지출액에 가중평균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어 적극적 개발활동의 장기 중단 여부와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차입금은 실제 차입원가에서 투자수익을 차감하고, 일반차입금은 지출액에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장기 중단 시 자본화를 중단하고 대부분의 활동 완료 시 종료한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에 투자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2,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공정가치모형 적용)을 구입하였다. 20x2년 7월 1일부터 (주)세무는 동 건물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동 건물을 잔여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잔존가치 ₩0)하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동 거래가 20x2년도 (주)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구 분	20×1년 말	20×2년 7월 1일	20×2년 말
공정가치	₩2,200,000	₩2,400,000	₩2,500,000

① ₩480,000 감소

② ₩280,000 감소

③ ₩200,000 증가

④ ₩300,000 증가

⑤ ₩580,0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전환할 때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전환 후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반영하며,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년 말 공정가치 2,200,000원, 20×2년 7월 1일 공정가치 2,400,000원, 20×2년 말 공정가치 2,5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이다.
주의할 조건: 7월 1일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가사용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되고, 전환 후에는 잔여내용연수 동안 월할상각한다. 연말의 재평가 증가액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사용할 공식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평가이익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평가이익=전환일 공정가치-기초 장부금액
전환 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전환일 공정가치잔여내용연수(월)×사용월수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던 투자부동산은 전환일까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자가사용으로 전환한 뒤에는 전환일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평가이익은 2,400,000원 - 2,200,000원 = 200,000원이며, 당기손익을 증가시킨다.
2. 20×2년 7월 1일 현재 잔여내용연수는 4년 - 1년 6개월 = 2년 6개월, 즉 30개월이다.
3. 7월부터 12월까지의 감가상각비는 $2,400,000 \div 30 \times 6 = 480,000$원이므로 당기손익을 감소시킨다.
4.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2,400,000원 - 480,000원 = 1,920,000원이다. 연말 공정가치 2,500,000원과의 차이 580,000원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200,000 - 480,000 = -280,000$원이므로 280,000원 감소이다.

선지 판단

① X — 480,000원 감소는 전환 후 감가상각비만 반영하고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평가이익 20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두 금액을 함께 반영한 280,000원 감소이다.
② O — 공정가치평가이익 200,000원에서 감가상각비 480,00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80,000원 감소한다.
③ X — 200,000원 증가는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평가이익만 반영하고 감가상각비 48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280,000원 감소이다.
④ X — 300,000원 증가는 20×1년 말 공정가치 2,200,000원과 20×2년 말 공정가치 2,500,000원의 차이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본 값이다. 전환일 이후에는 감가상각하고 연말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올바르게는 280,000원 감소이다.
⑤ X — 580,000원 증가는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920,000원과 연말 공정가치 2,500,000원의 차이인 재평가 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잘못 본 값이다. 이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올바른 영향은 280,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7월 1일 전후의 회계처리를 구분하지 않는 데 있다. 전환 전 200,000원의 공정가치평가이익은 당기손익, 전환 후 480,000원의 감가상각비는 당기비용, 연말 580,000원의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이다. 특히 ⑤는 재평가 증가액을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는 오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도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눈다. 전환일까지의 공정가치 변동, 전환일 공정가치를 기초로 한 잔여내용연수와 감가상각비, 기말 재평가액의 손익·기타포괄손익 구분 순서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 전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전환 후 감가상각은 비용, 재평가 증가는 기타포괄손익이다.

NoteBase

문 22.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한 원재료 가격이 현행대체원가 보다 하락한다면 평가손실을 인식한다.

②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불리우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와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및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포함 범위, 저가법에 따른 감액, 후불취득의 금융요소 및 비용 인식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 및 소모품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가 이하로 감액하지 않는다. 보관원가는 후속 생산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후불조건의 금융요소는 재고자산 원가가 아니라 금융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감액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평가손실을 인식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이다.
② O — 후속 생산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필요한 보관원가만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밖의 보관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다.
③ O — 후불조건이 실질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면 정상적인 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금융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④ O —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해당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O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라고 하며,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뿐 아니라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와 비정상적인 제조원가도 포함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원재료 가격 하락만 보고 곧바로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원재료의 감액 여부는 가격 하락 자체가 아니라 그 원재료로 만든 완성제품이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재료 감액 문제에서는 먼저 완성제품의 예상 판매가가 원가 이상인지 확인한다. 원가 이상이면 원재료를 감액하지 않고, 완성제품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렵다면 원재료의 감액 필요성을 판단한다.
보관원가·후불이자·감모손실은 각각 '생산에 필수인지', '금융요소인지', '발생기간의 손실인지'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완성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리면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필수 보관만 원가, 후불 금융요소는 이자비용, 감액·감모는 발생기간 비용이다.

NoteBase

문 23. (주)세무의 20x1년 기초재고자산은 ₩200,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1,000,000이다. (주)세무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12월 31일 실사를 통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300,00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추가 고려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20x1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20x1년 6월 1일에 (주)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상품(원가 ₩120,000) 중 원가 ₩20,000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기말 현재 (주)세무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실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20x1년 12월 21일에 (주)민국으로부터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송장가격: ₩60,000)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선박으로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x2년 1월 8일에 도착한다.
○ 20x1년 12월 30일에 반품률이 높은 상품(원가 ₩50,000)을 (주)대한에 판매 · 인도하였다.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반품기한은 20x2년 1월 10일까지이다.

① ₩690,000
② ₩770,000
③ ₩790,000
④ ₩870,000
⑤ ₩89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지재고조사액에서 소유권이 없는 수탁상품을 제외하고, 운송 중 매입상품과 반품 가능성이 남은 판매상품을 포함하여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장부상 기초재고자산은 ₩200,000이고 당기 매입액은 ₩1,000,000이다.
창고 실사액 ₩300,000에는 (주)한국 소유의 미판매 수탁상품 ₩100,0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수탁상품 ₩120,000 중 ₩20,000이 판매되었으므로 창고에 남은 금액은 ₩100,000이다.
FOB 선적지인도조건의 운송 중 상품 ₩60,000은 선적 시점부터 매입자인 (주)세무의 소유이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반품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판매상품 ₩50,000은 반품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액-기말재고자산
실지재고조사액은 단순히 창고에 있는 상품의 합계이므로, 실제 소유권을 기준으로 가감한 뒤 기말재고자산을 확정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미판매 수탁상품은 ₩120,000-₩20,000=₩100,000이다.
2. 기말재고자산은 ₩300,000-₩100,000+₩60,000+₩50,000=₩310,000이다.
3. 매출원가는 ₩200,000+₩1,000,000-₩310,000=₩89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690,000을 매출원가로 보면 기말재고자산이 ₩510,000이어야 하는데, 소유권 기준으로 조정한 기말재고자산은 ₩310,000이다. 틀린 값 ₩690,000 → 올바르게는 ₩890,000이다.
② X — ₩770,000을 매출원가로 보면 기말재고자산이 ₩430,000이어야 하므로 조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770,000 → 올바르게는 ₩890,000이다.
③ X — ₩790,000을 매출원가로 보면 기말재고자산이 ₩410,000이어야 한다. 이는 창고 실사액에 포함된 타인 소유의 미판매 수탁상품 ₩100,000을 제외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값 ₩790,000 → 올바르게는 ₩890,000이다.
④ X — ₩870,000을 매출원가로 보면 기말재고자산이 ₩330,000이어야 하므로 올바른 기말재고자산 ₩310,000과 ₩20,000 차이가 난다. 틀린 값 ₩870,000 → 올바르게는 ₩890,000이다.
⑤ O — 소유권 기준으로 조정한 기말재고자산 ₩310,000을 공식에 대입하면 매출원가는 ₩890,000이다.

오답 포인트

창고에 실제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상품을 자기 재고로 처리하거나, 창고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FOB 선적지인도조건의 운송 중 상품을 누락하기 쉽다. 또한 반품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상품을 단순히 인도되었다는 이유로 재고에서 제외하면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모두 잘못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지재고조사법 문제에서는 먼저 창고 실사액을 확인한 뒤, 각 상품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말 현재 소유권을 기준으로 타인 소유 상품은 빼고 자기 소유의 운송 중 상품과 판매 미확정 상품은 더한다. 그 결과를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한다.

암기 포인트

수탁상품은 제외, FOB 선적지인도 매입품은 포함,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판매품은 반품기한 전까지 포함한다.

NoteBase

문 24.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적용)에 취득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동 거래가 20x3년도 (주)세무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회수가능액	₩700,000	₩420,000	₩580,000

① ₩120,000 감소

② ₩20,000 감소

③ ₩20,000 증가

④ ₩120,000 증가

⑤ ₩160,000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의 후속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환입액을 계산하고, 두 금액의 순효과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1,000,000,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을 적용한다. 회수가능액은 20×1년 말 ₩700,000, 20×2년 말 ₩420,000, 20×3년 말 ₩580,000이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
손상차손환입액=환입 한도 내 장부금액-환입 전 장부금액
당기순이익 영향=손상차손환입이익-당기 감가상각비
손상 후에는 변경된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환입 시에는 손상이 없었을 때의 장부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 / 5년 = ₩200,000이다. 20×1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은 ₩800,000이므로 회수가능액 ₩700,000까지 ₩100,000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 20×2년 감가상각비는 ₩700,000 / 4년 = ₩175,000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525,000을 회수가능액 ₩420,000까지 낮추므로 ₩105,000의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한다.
3. 20×3년 감가상각비는 ₩420,000 / 3년 = ₩140,000이고, 환입 전 장부금액은 ₩280,000이다.
4. 손상차손이 없었다면 20×3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 - (₩200,000 × 3년) = ₩40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580,000이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의 상한은 ₩400,000이므로 환입액은 ₩400,000 - ₩280,000 = ₩120,000이다.
5. 20×3년 당기순이익에는 감가상각비 ₩140,000이 비용으로, 손상차손환입액 ₩120,000이 이익으로 반영된다. 순효과는 ₩120,000 - ₩140,000 = -₩20,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20,000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 ₩120,000은 손상차손환입이익이며 당기 감가상각비 ₩140,000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120,000 감소'가 아니라 '₩20,000 감소'가 맞다.
② O — 손상차손환입이익 ₩120,000에서 감가상각비 ₩140,000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20,000 감소한다.
③ X — 순효과는 -₩20,000이므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이다. '₩20,000 증가'가 아니라 '₩20,000 감소'가 맞다.
④ X — ₩120,000은 환입이익만 본 금액으로, 감가상각비 ₩140,000을 누락하였다. '₩120,000 증가'가 아니라 '₩20,000 감소'가 맞다.
⑤ X — ₩160,000은 20×3년 말 회수가능액 ₩580,000과 20×2년 말 장부금액 ₩420,000을 단순 비교한 값으로, 20×3년 감가상각과 환입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다. '₩160,000 증가'가 아니라 '₩20,000 감소'가 맞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회수가능액 ₩580,000까지 장부금액을 곧바로 올리거나, 손상차손환입이익 ₩120,000만 당기순이익 효과로 보는 것이다. 환입액은 손상이 없었을 때의 장부금액 ₩400,000을 넘을 수 없고, 당기의 감가상각비 ₩140,000도 반드시 함께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별로 '기초 장부금액 → 감가상각 → 손상 또는 환입' 순서로 계산한다. 환입 연도에는 손상이 없었을 때의 장부금액을 먼저 구해 환입 상한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당기 감가상각비와 환입이익의 순효과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 후 감가상각은 새 장부금액 기준, 손상환입은 무손상 장부금액이 상한, 당기순이익은 환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순액이다.

NoteBase

문 25. (주)세무는 신제품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차입원가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다. 20x1년은 연구단계이고, 20x2년은 개발단계(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함)에 속하는데, 20x2년 7월 1일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
무형자산(개발비)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2년 12월 31일 무형자산(개발비)의 장부금액은?

내역	20×1년 1월 1일~ 20×1년 12월 31일	20×2년 1월 1일~ 20×2년 6월 30일
연구원 급여	₩40,000	₩30,000
시험용 원재료 사용액	25,000	20,000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0,000	5,000
차입원가	5,000	5,000

① ₩49,500
② ₩50,000
③ ₩54,000
④ ₩55,000
⑤ ₩6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연구단계 지출과 개발단계 지출을 구분하고, 개발비의 취득원가에서 사용 가능 시점 이후의 상각액을 차감하여 기말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은 연구단계이므로 연구원 급여 40,000원, 시험용 원재료 25,000원,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0,000원 및 차입원가 5,000원은 당기비용이며 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20x2년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개발단계이므로 연구원 급여 30,000원, 시험용 원재료 20,000원, 시험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0원 및 관련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 5,000원을 개발비 원가에 포함한다.
프로젝트는 20x2년 7월 1일 완료되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x2년에는 6개월분을 상각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개발비 원가=개발단계 직접원가+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기말 장부금액=개발비 원가-상각액
상각액=개발비 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 개월 수12
개발비는 인식요건을 충족한 개발단계의 원가만 자산화하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므로 이 공식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20x2년 개발비 원가는 30,000원 + 20,000원 + 5,000원 + 5,000원 = 60,000원이다.
2. 연간 상각액은 60,000원 ÷ 5년 = 12,000원이다.
3.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 상각액은 $12{,}000 \times \frac{6}{12} = 6{,}000$원이다.
4. 20x2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은 60,000원 - 6,000원 = 54,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9,500원은 20x2년 차입원가 5,000원을 개발비 원가에서 제외하여 55,000원으로 잡고 6개월분 5,500원을 상각할 때 나오는 금액이다. 관련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도 포함하므로 올바른 장부금액은 54,000원이다.
② X — 50,000원은 개발비 원가 60,000원에서 상각액을 10,000원으로 잘못 차감한 금액이다. 6개월분 상각액은 6,000원이므로 올바른 장부금액은 54,000원이다.
③ O — 개발비 원가 60,000원에서 6개월분 상각액 6,000원을 차감하면 54,000원이다.
④ X — 55,000원은 차입원가를 제외한 개발단계 지출만 합산하고 상각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차입원가를 포함한 원가 60,000원에서 6,000원을 상각해야 하므로 올바른 장부금액은 54,000원이다.
⑤ X — 60,000원은 20x2년 개발단계에서 자본화한 최초 원가일 뿐 기말 장부금액이 아니다. 7월 1일부터의 6개월분 상각액 6,000원을 차감한 54,000원이 기말 장부금액이다.

오답 포인트

20x1년 연구단계 지출까지 자산화하거나, 20x2년의 관련 차입원가를 누락하거나, 프로젝트 완료일 이후의 월할상각을 빼먹기 쉽다. 특히 60,000원은 최초 원가이고,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상각 후 기말 장부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연구단계 지출을 전액 비용으로 제외하고 인식요건을 충족한 개발단계 지출만 합산한다. 그다음 사용 가능한 날부터 결산일까지의 상각기간을 월수로 계산하여 최초 원가에서 상각액을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연구단계는 비용, 인식요건을 충족한 개발단계는 자산,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NoteBase

문 26. (주)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판매하며, 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0단위이다. (주)세무는 현재 제품A 7,5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판매가격 ₩400으로 정규시장에 모두 판매한다. 최근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가격 ₩350에 제품A 3,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주)한국의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특별주문 수락시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제품A의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12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0이며, 조업도 수준에 따른 총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주)한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증가 또는 감소할 영업이익은? (단,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추정은 고저점법을 이용한다.)

조업도 수준	총제조간접원가
최대생산능력의 55%	₩1,755,000
최대생산능력의 65%	1,865,000
최대생산능력의 75%	1,975,000
최대생산능력의 80%	2,030,000

① ₩30,000 감소

② ₩45,000 감소

③ ₩75,000 증가

④ ₩90,000 증가

⑤ ₩120,000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저점법으로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를 추정한 뒤, 특별주문의 증분이익에서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포기하는 정규판매의 기회비용을 차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최대생산능력 10,000단위, 현재 생산·판매량 7,500단위, 특별주문량 3,000단위, 정규판매가격 400원, 특별주문가격 350원이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80원, 직접노무원가는 120원, 변동판매관리비는 0원이다.
총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 55%에서 1,755,000원, 80%에서 2,030,000원이다.
유휴생산능력은 2,500단위이므로 특별주문 3,000단위를 전량 수락하면 정규판매 5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고저점법에 따른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최고점 총원가-최저점 총원가최고점 조업량-최저점 조업량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영업이익 증감은 다음과 같다.
특별주문 공헌이익-포기한 정규판매의 공헌이익
총제조간접원가에는 고정원가가 섞여 있으므로 고저점법으로 변동원가만 분리한다. 또한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500단위에 대해서는 포기한 정규판매 공헌이익이 기회비용이 된다.

계산 과정

1. 최고점 조업량은 8,000단위이고 최저점 조업량은 5,5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2,030,000-1,755,0008,000-5,500=110원
2.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80원+120원+110원=310원이다.
3. 특별주문 3,000단위의 공헌이익은 다음과 같다.
(350-310)×3,000=120,000원
4. 정규판매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400원-310원-0원=90원이고, 포기하는 정규판매 500단위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90×500=45,000원
5. 따라서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는 120,000원-45,000원=7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영업이익은 30,000원 감소하지 않고 75,000원 증가한다. 특별주문 공헌이익 120,000원에서 기회비용 45,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틀린 표현 '30,000원 감소'는 '75,000원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② X — 45,000원은 영업이익 감소액이 아니라 포기한 정규판매 500단위의 기회비용이다. 이 비용까지 반영한 최종 영업이익은 75,000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 '45,000원 감소'는 '75,000원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③ O — 특별주문 공헌이익 120,000원에서 정규판매 포기의 기회비용 45,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75,000원 증가한다.
④ X — 90원은 정규판매 1단위의 공헌이익이며, 최종 영업이익 증가액은 90,000원이 아니라 75,000원이다. 틀린 표현 '90,000원 증가'는 '75,000원 증가'로 고쳐야 한다.
⑤ X — 120,000원은 유휴생산능력만 고려한 특별주문 공헌이익이다.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500단위의 기회비용 45,000원을 추가로 차감해야 하므로 최종 영업이익은 75,000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 '120,000원 증가'는 '75,000원 증가'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특별주문 3,000단위가 유휴생산능력 2,500단위를 500단위 초과한다는 점이다. ⑤처럼 특별주문 자체의 공헌이익 120,000원만 계산하면 포기한 정규판매의 기회비용 45,000원을 누락한다. 또한 총제조간접원가 전액이나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관련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고저점법으로 구한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10원만 증분원가에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문제는 먼저 변동원가를 분리하고, 특별주문 단위당 공헌이익을 계산한 다음, 주문량이 유휴생산능력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초과량이 있으면 그 수량에 정규판매 단위당 공헌이익을 곱한 기회비용을 특별주문 공헌이익에서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특별주문 증분이익 = 특별주문 공헌이익 - 유휴생산능력 초과분의 기회비용이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제품A(공헌이익률 50%)와 제품B(공헌이익률 30%) 두 제품만을 생산·판매하는데, 두 제품 간 매출액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주)세무의 20x1년 매출액 총액은 ₩7,000,000, 총고정비는 ₩1,750,000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예상 영업이익은 ₩700,000으로 설정하였다. (주)세무가 20x1년의 예상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A와 제품B의 매출액은?

① 제품A: ₩700,000 / 제품B: ₩6,300,000

② 제품A: ₩840,000 / 제품B: ₩6,160,000

③ 제품A: ₩1,750,000 / 제품B: ₩5,250,000

④ 제품A: ₩2,800,000 / 제품B: ₩4,200,000

⑤ 제품A: ₩3,150,000 / 제품B: ₩3,8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총공헌이익을 먼저 구한 뒤, 두 제품의 공헌이익률을 적용하여 제품별 매출액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매출액은 7,000,000원이고, 총고정비는 1,750,000원이며, 목표 영업이익은 700,000원이다.
제품A의 공헌이익률은 50%, 제품B의 공헌이익률은 30%이다.
제품A의 매출액을 x원으로 두면 제품B의 매출액은 $7{,}000{,}000 - x$원이다.

사용할 공식

영업이익=총공헌이익-고정비
총공헌이익=제품A 매출액× 50\%+제품B 매출액× 30\%
목표 영업이익이 주어졌으므로 필요한 총공헌이익은 고정비와 목표 영업이익의 합이며, 두 제품의 매출액 합계가 일정하므로 하나의 미지수로 연립관계를 세울 수 있다.

계산 과정

1. 목표 영업이익에 필요한 총공헌이익은 1,750,000원 + 700,000원 = 2,450,000원이다.
2. 제품별 공헌이익을 합하면 다음과 같다.
$0.5x + 0.3(7{,}000{,}000 - x) = 2{,}450{,}000$
3. 식을 정리하면 $0.2x = 350{,}000$이므로 $x = 1{,}750{,}000$이다.
4. 제품B의 매출액은 7,000,000원 - 1,750,000원 = 5,25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제품A 700,000원과 제품B 6,300,000원의 총공헌이익은 2,240,000원이고 영업이익은 490,000원이다. 목표 영업이익 700,000원에 미달한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르게는 제품A 1,750,000원, 제품B 5,250,000원이다.
② X — 제품A 840,000원과 제품B 6,160,000원의 총공헌이익은 2,268,000원이고 영업이익은 518,000원이다. 목표 영업이익에 미달한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르게는 제품A 1,750,000원, 제품B 5,250,000원이다.
③ O — 제품A 1,750,000원과 제품B 5,250,000원의 총공헌이익은 2,450,000원이고, 여기서 고정비 1,75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목표액인 700,000원이다.
④ X — 제품A 2,800,000원과 제품B 4,200,000원의 총공헌이익은 2,660,000원이고 영업이익은 910,000원이다.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한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르게는 제품A 1,750,000원, 제품B 5,250,000원이다.
⑤ X — 제품A 3,150,000원과 제품B 3,850,000원의 총공헌이익은 2,730,000원이고 영업이익은 980,000원이다.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한다. 틀린 금액이며, 올바르게는 제품A 1,750,000원, 제품B 5,25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총매출액 7,000,000원에 하나의 평균 공헌이익률을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된다. 제품A의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 공헌이익률이 높아지므로, 제품별 매출액에 각 공헌이익률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공헌이익은 목표 영업이익만이 아니라 고정비까지 회수하도록 2,450,000원으로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 영업이익 문제에서는 먼저 목표 공헌이익을 '고정비 + 목표 영업이익'으로 계산한다. 그다음 제품별 매출액의 합계 조건과 제품별 공헌이익률을 이용해 방정식을 세우고, 마지막에 산출된 영업이익이 목표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 공헌이익 = 고정비 + 목표 영업이익이며, 복수제품은 각 제품의 매출액에 해당 제품의 공헌이익률을 따로 곱한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20x1년에 제품A를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A의 20x1년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며,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제품A는 노동집약적 방법 또는 자본집약적 방법으로 생산 가능하며, 생산방법에 따라 품질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없다. 각 생산방법에 의한 예상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제품A 판매가격을 단위당 ₩600으로 책정하고, 제조원가 외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과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1,400,000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세무가 20x1년에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을 택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A)과 두 생산방법 간에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B)은 각각 얼마인가?

	노동집약적 생산방법	자본집약적 생산방법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0	₩250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2,100,000	₩3,100,000

① (A): 8,400단위 / (B): 20,000단위

② (A): 10,000단위 / (B): 15,000단위

③ (A): 10,000단위 / (B): 20,000단위

④ (A): 14,000단위 / (B): 15,000단위

⑤ (A): 14,000단위 / (B): 20,000단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노동집약적 생산방법의 손익분기점 판매량과 두 생산방법의 영업이익이 같아지는 무차별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은 단위당 600원이고 변동판매관리비는 단위당 50원이다.
노동집약적 방법: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0원,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2,100,000원이다.
자본집약적 방법: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250원,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3,100,000원이다.
두 방법 모두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1,400,000원이 발생한다.

사용할 공식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이다.
두 생산방법의 영업이익이 같아지는 판매량은 각 방법의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량-고정원가를 서로 같게 놓아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A) 노동집약적 방법의 단위당 총변동원가는 300원+50원=350원이고, 단위당 공헌이익은 600원-350원=250원이다. 총고정원가는 2,100,000원+1,400,000원=3,500,000원이므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3,500,000원÷250원=14,000단위이다.
(B) 판매량을 Q라고 하면 노동집약적 방법의 영업이익은 $250Q - 3,500,000$, 자본집약적 방법의 영업이익은 $300Q - 4,500,000$이다. 따라서 $250Q - 3,500,000 = 300Q - 4,500,000$이고, $50Q = 1,000,000$이므로 $Q = 20,00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 (A)를 8,400단위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고정제조간접원가 2,100,000원만 단위당 공헌이익 250원으로 나누면 나오는 값으로, 고정판매관리비 1,400,000원을 누락한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A) 14,000단위, (B) 20,000단위이다.
② X — (A) 10,000단위와 (B) 15,000단위가 모두 틀렸다. 노동집약적 방법의 총고정원가와 두 방법의 고정원가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면 각각 14,000단위와 20,000단위이다.
③ X — (A)를 10,000단위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노동집약적 방법의 총고정원가 3,500,000원과 단위당 공헌이익 250원을 적용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A) 14,000단위, (B) 20,000단위이다.
④ X — (B)를 15,000단위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두 방법의 고정원가 차이는 1,000,000원이고 단위당 공헌이익 차이는 5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A) 14,000단위, (B) 20,000단위이다.
⑤ O — 노동집약적 방법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4,000단위이고 두 생산방법의 영업이익이 같아지는 판매량은 20,00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A)에서는 제조원가뿐 아니라 변동판매관리비와 고정판매관리비도 포함해야 한다. (B)에서는 두 방법에 공통인 판매관리비를 포함해도 되지만 영업이익식을 양변에 놓으면 서로 상쇄된다. 핵심은 두 방법의 고정원가 차이 1,000,000원을 단위당 공헌이익 차이 50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익분기점은 선택한 방법의 총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다. 생산방법 간 무차별점은 두 방법의 영업이익식을 같게 놓거나 고정원가 차이를 단위당 변동원가 절감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암기 포인트

손익분기점은 고정원가÷공헌이익, 생산방법 무차별점은 고정원가 차이÷단위당 변동원가 차이이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전부원가계산방법을 채택하여 단일 제품A를 생산 · 판매하며, 재고자산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20x1년 제품A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재공품의 기초와 기말재고는 없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0, 고정판매관리비는 ₩675,000이다. (주)세무의 20x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745,000일 경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기말제품재고액은?

	수량	재고금액
기초제품	1,500단위	₩100,000(고정제조간접원가 ₩45,000 포함)
당기완성품	24,000단위	
당기판매	23,500단위	
기말제품	2,000단위	₩150,000(고정제조간접원가 포함)

① 영업이익: ₩710,000 / 기말제품재고액: ₩80,000

② 영업이익: ₩710,000 / 기말제품재고액: ₩90,000

③ 영업이익: ₩720,000 / 기말제품재고액: ₩80,000

④ 영업이익: ₩720,000 / 기말제품재고액: ₩90,000

⑤ 영업이익: ₩730,000 / 기말제품재고액: ₩9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로 전부원가계산이익을 변동원가계산이익으로 조정하고, 기말제품의 변동제조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제품은 1,500단위이며 재고금액 100,000원 중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5,000원이다. 당기 완성품은 24,000단위, 당기 판매량은 23,500단위, 기말제품은 2,000단위이다.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0원이고, 기말제품의 전부원가계산 재고액은 150,000원이다. 선입선출법이므로 기말제품 2,000단위는 모두 당기 생산분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 생산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0/24,000이다.

기말제품의 변동원가계산 재고액은 전부원가계산 기말재고액-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이익조정식은 전부원가계산이익-변동원가계산이익=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재고에 포함되지만,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당기 생산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0/24,000 = 35원이다.
2. 기말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 × 35 = 70,000원이다.
3.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액은 150,000 − 70,000 = 80,000원이다.
4. 전부원가계산이익이 변동원가계산이익보다 큰 금액은 70,000 − 45,000 = 25,000원이다.
5.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745,000 − 25,000 = 72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기말제품재고액 80,000원은 맞지만 영업이익 710,000원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영업이익 720,000원, 기말제품재고액 80,000원이다.
② X — 영업이익 710,000원과 기말제품재고액 90,000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영업이익 720,000원, 기말제품재고액 80,000원이다.
③ O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720,000원과 기말제품재고액 80,000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④ X — 영업이익 720,000원은 맞지만 기말제품재고액 90,000원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기말제품재고액 80,000원이다.
⑤ X — 영업이익 730,000원과 기말제품재고액 90,000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영업이익 720,000원, 기말제품재고액 8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제품 2,000단위는 선입선출법상 당기 생산분이므로 당기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35원을 적용한다. 또한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 차이는 단순히 기말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 70,000원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재고에서 당기에 비용화된 45,000원도 함께 반영하여 순증가액 25,000원으로 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가흐름 가정으로 기말재고가 어느 기간의 생산분인지 확인하고, 기말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거해 변동원가 재고액을 구한다. 이어 기말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기초재고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뺀 금액으로 두 이익을 조정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이익에서 변동원가이익으로 바꿀 때는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재고 증가분을 뺀다. 이 문항에서는 70,000 − 45,000 = 25,000원을 뺀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단일 제품A를 생산하는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70,000단위이며, 20x1년에 제품A를 45,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A 1단위 생산에 4kg 투입)되며,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20x1년 초 실제재고와 20x1년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kg)는?

	20×1년 초	20×1년 말
원재료	4,000kg	5,000kg
재공품	1,500단위(완성도 60%)	1,800단위(완성도 30%)
제 품	1,200단위	1,400단위

재공품 계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세무가 20×1년에 구입해야 하는

① 180,000kg

② 182,000kg

③ 183,000kg

④ 184,000kg

⑤ 185,600kg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품 생산량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당기 원재료 투입량을 구한 뒤, 원재료 재고 증감을 반영하여 당기 원재료 구입량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계획은 45,000단위, 기초·기말 제품재고는 각각 1,200단위와 1,400단위이다. 기초·기말 재공품은 각각 1,500단위와 1,800단위이고, 제품 1단위당 원재료 투입량은 4kg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공품의 완성도 60%와 30%는 원재료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기초·기말 원재료 재고는 각각 4,000kg과 5,000kg이다.

사용할 공식

당기 완성품 생산량=판매량+기말 제품-기초 제품

당기 착수량=당기 완성품 생산량+기말 재공품-기초 재공품

원재료 구입량=당기 원재료 투입량+기말 원재료-기초 원재료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 재공품에 공정 초 원재료가 전기에 이미 전량 투입되었으므로 기초 재공품에 대한 당기 원재료 투입량은 0이다. 따라서 당기 원재료 투입량은 당기 착수량에 단위당 원재료 투입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 완성품 생산량은 $45,000 + 1,400 - 1,200 = 45,200$단위이다.
2. 당기 착수량은 $45,200 + 1,800 - 1,500 = 45,500$단위이다. 이는 연간 최대생산능력 70,000단위 이내이다.
3. 당기 원재료 투입량은 $45,500 \times 4 = 182,000kg$이다.
4. 당기 원재료 구입량은 $182,000 + 5,000 - 4,000 = 183,000kg$이다.

선지 판단

① X — $180,000kg$은 판매량 45,000단위에 단위당 원재료 $4kg$만 곱하여 제품·재공품·원재료의 재고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른 구입량은 $183,000kg$이다.
② X — $182,000kg$은 당기 착수량에 투입된 원재료의 양일 뿐, 기말 원재료가 기초보다 $1,000kg$ 증가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른 구입량은 $183,000kg$이다.
③ O — 당기 원재료 투입량 $182,000kg$에 원재료 재고 증가분 $1,000kg$을 더하면 구입량은 $183,000kg$이다.
④ X — $184,000kg$은 재고 흐름식으로 산출되지 않는다. 당기 투입량에 더할 원재료 재고 증가분은 $1,000kg$이므로 올바른 구입량은 $183,000kg$이다.
⑤ X — $185,600kg$은 판매량에 기말 제품재고만 더한 46,400단위에 $4kg$을 곱한 값으로, 기초 제품재고와 재공품 및 원재료 재고 변동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른 구입량은 $183,000kg$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완성도와 원재료 투입시점을 혼동하는 데 있다. 원재료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 재공품은 완성도가 30%라도 원재료는 100% 투입된 상태이고, 선입선출법상 기초 재공품의 원재료는 전기에 이미 투입된 것이다. 또한 $182,000kg$은 구입량이 아니라 당기 투입량이므로 원재료 재고 증가분을 추가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품 재고식으로 완성품 생산량을 구하고, 재공품 재고식으로 당기 착수량을 구한 다음, 단위당 원재료량을 곱해 당기 투입량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원재료 구입량은 당기 투입량에 기말 원재료를 더하고 기초 원재료를 빼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정 초 전량 투입·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 재공품 원재료는 당기 투입 0, 기말 재공품 원재료는 100%이다.
구입량은 사용량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뺀 값이다.

NoteBase

문 31. 원가-조업도-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답지항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계단원가(준고정비)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계단 수(구간 수)만큼 존재한다.

②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진다.

③ 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

④ 공헌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진다.

⑤ 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세후 목표이익 및 계단원가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쓰인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이고, 목표매출액은 (고정원가+세전 목표이익) ÷ 공헌이익률이다.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이를 세후 목표이익 ÷ (1-법인세율)로 환산한 세전 목표이익을 사용한다.
계단원가는 일정 조업도 구간에서는 일정하지만 구간을 넘으면 불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원가이다. 각 구간에서 계산한 손익분기점이 그 구간의 조업도 범위 안에 들어와야 실제 손익분기점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반드시 계단 수만큼 존재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각 구간에서 계산한 손익분기점이 해당 구간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제 손익분기점이 되므로, 계단원가가 있어도 손익분기점의 수가 계단 수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올바르게는 '계단원가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나, 그 수가 계단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이다.
② O —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유지할 때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필요한 세전 목표이익 세후 목표이익 ÷ (1-법인세율)이 커진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도 많아진다.
③ O — 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진다. 고정원가가 일정할 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이므로 낮아진다.
④ O — 목표이익 달성 매출액은 (고정원가+세전 목표이익) ÷ 공헌이익률이다. 분자인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이 일정할 때 공헌이익률이 증가하면 필요한 매출액은 작아진다.
⑤ O — 손익분기점에서는 세전이익이 0이어서 법인세도 0이다. 따라서 법인세율은 손익분기점 공식에 들어가지 않으며, 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계단원가가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계단 수만큼 반드시 존재한다'로 과장한다. 또한 ②의 세후 목표이익과 ⑤의 손익분기점을 혼동하기 쉽다. 법인세율은 양(+)의 세후 목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익이 0인 손익분기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손익분기점인지 목표이익인지 구분한다. 손익분기점은 공헌이익으로 고정원가만 회수하는 지점이고, 세후 목표이익 문제만 세전 환산을 한다. 계단원가는 구간별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한 뒤 계산값이 해당 구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원가 감소 → 공헌이익 증가 → 손익분기점 감소이다. 세율은 세후 목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손익분기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단 수와 손익분기점 수는 반드시 같지 않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기계시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20x1년에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787,500이 발생되었고, 기계시간당 ₩25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 결과 ₩37,500만큼 과대배부 되었다. 20x1년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인 경우, (주)세무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① ₩715,000

② ₩725,000

③ ₩750,000

④ ₩800,000

⑤ ₩825,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과대배부액으로 실제조업도 기준 예정배부액을 구한 뒤, 실제조업도를 예정조업도로 환산하여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 제조간접원가: ₩787,500
과대배부액: ₩37,500
예정배부율: 기계시간당 ₩25
실제조업도: 예정조업도의 110%
구해야 할 값: 예정조업도 기준 제조간접원가 예산액

사용할 공식

예정배부액을 OH_a, 실제 기계시간을 H_a, 예정 기계시간을 H_b, 예정배부율을 r라고 하면 $OH_a = H_a r$이고 $H_a = 1.10 H_b$이다.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H_b r$이다.

과대배부는 예정배부액이 실제 제조간접원가보다 큰 경우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실제 제조간접원가에 과대배부액을 더해 구한다.

계산 과정

1. 예정배부액은 ₩787,500 + ₩37,500 = ₩825,000이다.
2. 실제 기계시간은 ₩825,000 ÷ 기계시간당 ₩25 = 33,000시간이다.
3.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이므로 예정 기계시간은 33,000시간 ÷ 1.10 = 30,000시간이다.
4.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30,000시간 × 기계시간당 ₩25 = ₩750,0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715,000'은 예정조업도 30,000시간에 예정배부율 ₩25를 곱한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750,000이다.
② X — '₩725,000'은 계산된 제조간접원가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750,000이다.
③ O — 예정 기계시간 30,000시간에 기계시간당 ₩25를 곱하면 ₩750,000이므로 옳다.
④ X — '₩800,000'은 예정조업도 기준 예산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750,000이다.
⑤ X — '₩825,000'은 실제조업도 33,000시간에 따라 배부한 예정배부액이다. 예정조업도 기준 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은 ₩750,000이다.

오답 포인트

과대배부 ₩37,500은 실제원가에서 빼는 금액이 아니라 예정배부액이 실제원가를 초과한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원가에 더해야 한다. 또한 ₩825,000은 실제조업도 기준 예정배부액이며, 문제에서 묻는 예정조업도 기준 예산액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대배부·과소배부 문제는 '실제원가와 예정배부액의 관계 확정 → 실제조업도 계산 → 예정조업도로 환산 → 예산액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실제조업도가 예정조업도의 110%이면 예정조업도는 실제조업도를 1.10으로 나눈 값이다.

암기 포인트

과대배부는 예정배부액이 실제원가보다 큰 상태이며, 예산액은 예정조업도 × 예정배부율이다.

NoteBase

문 33. (주)세무의 20x1년 5월 중 자료는 다음과 같다. 5월 중 기초원가(prime cost)는 ₩325,000이고, 가공원가(conversion cost)가 직접재료원가의 4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25,000이다. (주)세무의 5월 매출원가는?

	5월 1일	5월 31일
재 공 품	₩30,000	₩25,000
제 품	20,000	10,000

① ₩320,000

② ₩345,000

③ ₩350,000

④ ₩360,000

⑤ ₩365,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의 관계에서 당기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를 구한 뒤,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기말 재고를 차례로 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DM*은 직접재료원가, *DL*은 직접노무원가, *OH*는 제조간접원가이다.
기초원가: $DM + DL$ = 325,000원
가공원가: $DL + OH$ = 직접재료원가의 40%
제조간접원가: 25,000원
재공품: 기초 30,000원, 기말 25,000원
제품: 기초 20,000원, 기말 10,000원

사용할 공식

기초원가=DM+DL
가공원가=DL+OH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
매출원가=기초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이고,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므로 두 관계식을 함께 사용한다. 이후 재공품 계정으로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구하고, 제품 계정으로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DL + 25{,}000 = 0.4DM$, $DM + DL = 325{,}000$이다. 첫째 식에서 $DL = 0.4DM - 25{,}000$이므로 둘째 식에 대입하면 $1.4DM = 350{,}000$이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는 250,000원, 직접노무원가는 75,000원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50,000원 + 직접노무원가 75,000원 + 제조간접원가 25,000원 = 350,000원이다.
3.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 30,000원 + 당기총제조원가 350,000원 - 기말재공품 25,000원 = 355,000원이다.
4.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20,000원 + 당기제품제조원가 355,000원 - 기말제품 10,000원 = 36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20,000원은 계산된 매출원가 365,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의 금액은 36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345,000원은 계산된 매출원가 365,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의 금액은 36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350,000원은 당기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인 당기총제조원가이다. 재공품과 제품 재고를 조정한 매출원가는 365,000원이다.
④ X — 360,000원은 계산된 매출원가 365,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의 금액은 365,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재공품 재고를 조정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355,000원이고, 여기에 제품의 기초·기말 재고를 조정하면 매출원가는 365,000원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350,000원은 당기총제조원가일 뿐 매출원가가 아니다.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재공품 재고를 조정해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구하고, 다시 제품 재고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재고는 더하고 기말재고는 빼는 방향을 뒤바꾸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의 연립관계로 원가요소를 먼저 구한 뒤, 당기총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매출원가의 순서로 계산한다. 각 재고 조정에서는 기초재고를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다.

암기 포인트

기초원가는 재료+노무, 가공원가는 노무+제조간접원가이다. 원가 흐름은 당기총제조원가 → 재공품 조정 → 당기제품제조원가 → 제품 조정 → 매출원가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제품A와 제품B를 생산 · 판매하고 있으며, 두 제품의 단위당 연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세무가 제품A와 제품B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계시간은 연간 3,700시간이다. (주)세무가 제품을 외부로 판매할 경우 시장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외부 최대 수요량은 제품A 700개, 제품B 400개이다. (주)세무가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품배합은?

구 분	제품A	제품B
판매가격	₩200,000	₩240,000
직접재료원가	85,000	95,000
직접노무원가	10,000	10,000
변동제조간접원가(기계시간당 ₩5,000)	20,000	30,000
변동판매관리비	5,000	15,000
고정제조간접원가	15,000	25,000
고정판매관리비	30,000	20,000
단위당 원가 계	165,000	195,000

① 제품A: 700개 / 제품B: 100개

② 제품A: 700개 / 제품B: 150개

③ 제품A: 700개 / 제품B: 400개

④ 제품A: 250개 / 제품B: 400개

⑤ 제품A: 325개 / 제품B: 400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약자원인 기계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을 비교하여 우선 생산할 제품과 최적 제품배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85,000원+10,000원+20,000원+5,000원=120,000원이고, 제품 B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95,000원+10,000원+30,000원+15,000원=150,000원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가 기계시간당 5,000원이므로 단위당 기계시간은 제품 A가 20,000/5,000 = 4시간, 제품 B가 30,000/5,000 = 6시간이다.
연간 가용 기계시간은 3,700시간이고, 최대 수요량은 제품 A 700개, 제품 B 400개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제품배합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단기 제품배합 의사결정에서 제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
기계시간당 공헌이익=단위당 공헌이익단위당 기계시간
기계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품 한 개의 공헌이익이 아니라 희소한 기계시간 1시간이 창출하는 공헌이익을 비교한다.

계산 과정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00,000원-120,000원=80,000원이고,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80{,}000/4 = 20{,}000$원이다.
제품 B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240,000원-150,000원=90,000원이고,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은 $90{,}000/6 = 15{,}000$원이다.
제품 A의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더 크므로 A를 최대 수요량인 700개까지 먼저 생산한다. 이에 필요한 시간은 $700 \times 4 = 2{,}800$시간이고, 남은 시간은 $3{,}700 - 2{,}800 = 900$시간이다. 남은 시간으로 생산할 수 있는 B는 $900/6 = 150$개이다. 따라서 최적 제품배합은 제품 A 700개와 제품 B 150개이다.

선지 판단

① X — 제품 A 700개와 제품 B 100개는 3,400시간만 사용하여 300시간이 남는다. B를 50개 더 생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제품 A 700개, 제품 B 150개이다.
② O — 제품 A 700개에 2,800시간, 제품 B 150개에 900시간이 들어 총 3,700시간을 모두 사용하며,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A를 먼저 최대 수요량까지 생산한 배합이다.
③ X — 제품 A 700개와 제품 B 400개에는 $700 \times 4 + 400 \times 6 = 5{,}200$시간이 필요하여 가용시간 3,700시간을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제품 A 700개, 제품 B 150개이다.
④ X — 제품 A 250개와 제품 B 400개는 3,400시간만 사용하여 300시간이 남고,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더 큰 A도 최대 수요량에 이르지 않았다. 이 배합에서 남은 시간까지 쓰면 A 325개, B 400개가 되지만, 이 역시 최적 배합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제품 A 700개, 제품 B 150개이다.
⑤ X — 제품 A 325개와 제품 B 400개는 3,700시간을 모두 사용하지만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낮은 B를 먼저 최대 생산한 배합이다. 이 배합의 총공헌이익은 62,000,000원으로, 제품 A 700개와 제품 B 150개의 총공헌이익 69,500,000원보다 7,500,000원 적다. 올바르게는 제품 A 700개, 제품 B 150개이다.

오답 포인트

제품 B는 단위당 공헌이익이 90,000원으로 제품 A의 80,000원보다 크지만, 단위당 기계시간도 더 많이 사용한다. ⑤처럼 단위당 공헌이익만 비교하면 B를 먼저 생산하게 되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④는 300시간을 남겨 두므로 제약자원을 모두 활용하지 못한 배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약자원이 하나인 제품배합 문제는 각 제품의 공헌이익을 구한 뒤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순서로 최대 수요량까지 배정하고, 남은 제약자원으로 다음 제품의 생산량을 계산한다. 고정원가는 배합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면 관련원가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제약자원이 있으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단일 제품C를 생산하며, 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한다. 20x2년 제품C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1,000개로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20x2년 제품C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수익발생과 현금유입 시점은 동일하며 원가(비용)발생과 현금유출 시점도 동일하다. (주)세무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A)과 판매량이 1,000개인 경우의 세후영업이익(B)은?

◯ 단위당 판매가격 ₩6,000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2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600
◯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242,000 (기계 감가상각비 ₩72,000 포함)
◯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206,800 (매장건물 감가상각비 ₩64,800 포함)
◯ 법인세율 25%
◯ 기계와 매장건물은 20x0년에 취득하였다.

① (A): 222단위 / (B): ₩563,400
② (A): 444단위 / (B): ₩563,400
③ (A): 222단위 / (B): ₩666,000
④ (A): 444단위 / (B): ₩666,000
⑤ (A): 666단위 / (B): ₩666,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변동원가계산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뒤, 세후현금흐름에는 감가상각비의 비현금성 및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고 세후영업이익에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포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위당 판매가격은 6,000원,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3,200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600원이다. 따라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1,200원이다.
총고정원가는 242,000원 + 206,800원 = 448,800원이고, 감가상각비는 72,000원 + 64,800원 = 136,800원이다. 현금고정원가는 448,800원 - 136,800원 = 312,000원이며 법인세율은 25%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세후현금흐름은
세후현금흐름=(영업이익)(1-세율)+감가상각비
로 계산한다.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과 법인세를 줄이지만 현금유출이 아니므로 세후영업이익에 다시 더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1-세율)
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판매량을 Q라 하면 영업이익은 $1{,}200Q - 448{,}800$원이다.
2. 세후현금흐름분기점에서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0 = (1{,}200Q - 448{,}800) \times 0.75 + 136{,}800$
$0 = 900Q - 199{,}800$
따라서 $Q = 222$단위이므로 (A)는 222단위이다.
3. 판매량이 1,000개이면 영업이익은 1,200원 × 1,000개 - 448,800원 = 751,200원이다. 따라서 세후영업이익은 751,200원 × 0.75 = 563,400원이므로 (B)는 563,4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A) 222단위와 (B) 563,400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② X — (B) 563,400원은 맞지만 '(A) 444단위'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A) 222단위이다.
③ X — (A) 222단위는 맞지만 '(B) 666,000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B) 563,400원이다. 666,000원은 감가상각비를 영업비용에서 제외한 888,000원에 75%를 곱한 값으로,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결과이다.
④ X — '(A) 444단위'와 '(B) 666,00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A) 222단위, (B) 563,400원이다.
⑤ X — '(A) 666단위'와 '(B) 666,00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A) 222단위, (B) 563,4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세후현금흐름과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처리하면 틀린다. 세후현금흐름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비현금비용이므로 세후영업이익에 다시 더하지만, 세후영업이익 자체를 구할 때는 감가상각비도 영업비용에 포함한다. 특히 ③~⑤의 666,000원은 감가상각비를 영업이익 계산에서 빼 버린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위당 공헌이익과 총고정원가를 구한다. 현금흐름분기점은 '영업이익의 세후 금액 + 감가상각비 = 0'으로 풀고, 세후영업이익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영업이익에 1 - 세율을 곱해 구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세후현금흐름 = 세후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세후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차감 후 영업이익 × (1 - 세율)이다.

NoteBase

문 36. (주)세무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제조지시서#1은 전기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제조지시서#2와 #3은 당기 초에 착수되었다. 당기 중 제조지시서#1과 #2는 완성되었으나, 당기말 현재 제조지시서#3은 미완성이다. 당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근거하여 배부한다. 당기에 제조지시서#1 제품은 전량 판매되었고, 제조지시서#2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1	#2	#3	합 계
기초금액	₩450	-	-	
[당기투입액]				
직접재료원가	₩6,000	₩2,500	₩( )	₩10,000
직접노무원가	500	( )	( )	1,000
제조간접원가	( )	1,000	( )	4,000

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250이다.

② 당기총제조원가는 ₩15,000이다.

③ 기초재공품은 ₩450이다.

④ 기말재공품은 ₩2,750이다.

⑤ 당기매출원가는 ₩8,950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개별원가계산에서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 뒤, 제조지시서별 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재공품·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 직접재료원가 합계는 10,000원, 직접노무원가 합계는 1,000원, 제조간접원가 합계는 4,000원이다. 제조지시서 #1과 #2는 완성되었고 #3은 미완성이므로 #3의 원가는 기말재공품이 된다. #1은 전량 판매되었으므로 #1의 완성원가가 당기매출원가가 되며, #2의 완성원가는 기말제품에 남는다.

사용할 공식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합계 ÷ 직접노무원가 합계이다. 따라서 배부율은 $4{,}000 \div 1{,}000 = 400\%$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으로 계산한다. 완성된 #1과 #2의 원가만 당기제품제조원가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직접재료원가 #3은 10,000원-6,000원-2,500원=1,500원이다.
2.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400%이므로 #1의 제조간접원가는 500원×400%=2,000원이다. #2는 제조간접원가가 1,000원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1,000원÷400%=250원이다. 따라서 #3의 직접노무원가는 1,000원-500원-250원=250원이고, 제조간접원가는 250원×400%=1,000원이다.
3. #3의 원가는 1,500원+250원+1,000원=2,750원이므로 기말재공품은 2,750원이다.
4. 당기총제조원가는 10,000원+1,000원+4,000원=15,000원이다.
5. 당기제품제조원가는 450원+15,000원-2,750원=12,700원이다.
6. 전량 판매된 #1의 원가는 기초금액 450원+당기 직접재료원가 6,000원+당기 직접노무원가 500원+배부 제조간접원가 2,000원=8,950원이므로 당기매출원가는 8,95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250원이 아니라 12,700원이다. 12,250원은 완성된 #1·#2의 당기투입액만 더하고 #1의 기초재공품 450원을 빠뜨린 금액이다.
② O —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10,000원, 직접노무원가 1,000원, 제조간접원가 4,000원의 합계인 15,000원이다.
③ O — 전기부터 작업한 제조지시서 #1의 기초금액이 450원이므로 기초재공품은 450원이다.
④ O — 미완성인 #3의 직접재료원가 1,500원, 직접노무원가 250원, 제조간접원가 1,000원을 합하면 기말재공품은 2,750원이다.
⑤ O — 전량 판매된 #1의 총원가는 기초금액 450원을 포함하여 8,950원이므로 당기매출원가는 8,95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12,250원은 #1과 #2의 당기투입액만 합산한 값이다. 전기부터 작업한 #1의 기초재공품 450원도 완성된 제품의 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완성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2의 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에는 포함되지만 당기매출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배부율로 제조지시서별 빈칸을 채운다. 그다음 미완성 작업의 원가는 기말재공품, 완성된 작업의 원가는 당기제품제조원가, 완성 후 판매된 작업의 원가는 매출원가로 구분한다. 전기 착수 작업이 완성되면 그 작업의 기초재공품도 완성원가에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이다. 완성은 제품으로, 미완성은 재공품으로, 판매는 매출원가로 이동한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분권화된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있다. A사업부는 반제품M을 최대 3,000단위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재 단위당 판매가격 ₩600으로 2,850단위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 반제품M 300단위를 요청하였다. A사업부 반제품M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변동판매관리비는 ₩0)이며, 사내대체를 하여도 외부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A사업부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하여야 하며, 사내대체 수락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A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① ₩350

② ₩400

③ ₩450

④ ₩500

⑤ ₩5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휴생산능력과 외부판매 포기로 생기는 기회원가를 함께 반영하여 공급사업부의 최소 사내대체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최대 생산능력은 3,000단위이고 현재 외부판매량은 2,850단위이므로 유휴생산능력은 150단위이다. B사업부의 요청량은 300단위이므로 150단위는 유휴생산능력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150단위는 외부판매를 포기해야 한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고 외부판매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600-₩300=₩300이다.

사용할 공식

공급사업부의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다음과 같다.
P_=대체수량의 증분변동원가+외부판매 포기의 기회원가대체수량
공급사업부가 사내대체 전 이익을 유지하려면 사내대체 수입이 추가 변동원가와 포기한 외부판매의 공헌이익을 모두 보전해야 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유휴생산능력은 3,000단위-2,850단위=150단위이다.
2. 외부판매 포기 수량은 300단위-150단위=150단위이다.
3. 300단위의 증분변동원가는 300단위×₩300=₩90,000이다.
4. 외부판매 포기의 기회원가는 150단위×(₩600-₩300)=₩45,000이다.
5. 보전해야 할 총액은 ₩90,000+₩45,000=₩135,000이므로,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다음과 같다.

P_=₩135,000300단위=₩450/단위

선지 판단

① X — ₩350이면 사내대체 수입은 ₩105,000으로 보전 필요액 ₩135,000보다 ₩30,000 부족하여 A사업부의 이익이 감소한다.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350'이 아니라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450'이 옳다.
② X — ₩400이면 사내대체 수입은 ₩120,000으로 보전 필요액보다 ₩15,000 부족하다.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400'이 아니라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450'이 옳다.
③ O — ₩450이면 사내대체 수입이 ₩135,000이 되어 증분변동원가 ₩90,000과 기회원가 ₩45,000을 정확히 보전하므로 사내대체 전 이익이 감소하지 않는다.
④ X — ₩500이면 A사업부의 이익은 감소하지 않지만, 보전 필요액보다 ₩15,000을 더 받으므로 최소가격이 아니다.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500'이 아니라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450'이 옳다.
⑤ X — ₩550이면 보전 필요액보다 ₩30,000을 더 받으므로 최소가격이 아니다.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550'이 아니라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450'이 옳다.

오답 포인트

요청량 300단위 전부가 외부판매를 대체한다고 보거나 전부가 유휴생산능력으로 생산된다고 보면 틀린다. 유휴생산능력 150단위에는 기회원가가 없고, 외부판매를 포기하는 나머지 150단위에만 단위당 공헌이익 ₩300의 기회원가가 발생한다. 또한 ₩500과 ₩550은 이익 감소를 막는 가격이기는 하지만 '최소'가격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유휴생산능력을 계산하고, 요청량 중 유휴능력을 초과하여 외부판매를 밀어내는 수량만 구한다. 그 수량의 외부판매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계산한 뒤 전체 대체수량의 증분변동원가에 더하고, 이를 전체 대체수량으로 나누면 최소 사내대체가격이 된다.

암기 포인트

최소 사내대체가격은 단위당 변동원가에 대체수량 1단위당 기회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기회원가는 외부판매를 실제로 포기하는 수량에만 발생한다.

NoteBase

문 38. 부문별 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가 달라져도 배부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②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만 고려하여 그 방향에 따라 보조부문의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한다.

③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상호배부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한다.

④ 단계배부법은 한 번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는 원래 배부한 보조부문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고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에 주고받는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직접배부법·단계배부법·상호배부법이 보조부문 간 서비스 수수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배부법: 보조부문 간 서비스 수수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이다.
단계배부법: 보조부문의 배부순서를 정한 뒤 한 방향으로만 보조부문 간 서비스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미 배부를 마친 보조부문으로는 원가를 다시 배부하지 않으므로 배부순서에 따라 배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상호배부법: 보조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은 서비스를 모두 반영하여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배부순서가 달라져도 배부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단계배부법은 먼저 배부한 보조부문으로 후순위 보조부문의 원가를 되돌려 배부하지 않으므로, 배부순서가 달라지면 각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의 배부순서에 따라 배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이다.
② O — 단계배부법은 정해진 배부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간 서비스 제공을 한 방향으로만 인정하고 보조부문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부한다.
③ O —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들이 서로 제공한 서비스를 모든 방향으로 반영하므로 보조부문 간 상호 서비스 관계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다.
④ O — 단계배부법에서는 한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고 나면 후순위 보조부문의 원가를 그 선순위 보조부문에 다시 배부하지 않는다. 배부 중인 보조부문의 원가는 아직 배부가 끝나지 않은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된다.
⑤ O —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서비스 수수관계를 전부 무시하고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배부한다.

오답 포인트

단계배부법이 보조부문 간 서비스를 일부 반영한다는 사실만 보고 배부순서의 영향을 놓치기 쉽다. 단계배부법은 상호배부를 한 방향으로 제한하므로 어느 보조부문을 먼저 배부하는지가 최종 배부금액에 영향을 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부문 간 서비스 반영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배부법은 전부 무시하고, 단계배부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른 한 방향만 반영하며, 상호배부법은 모든 방향을 반영한다. 단계배부법에서 '순서와 무관하다'는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은 무시, 단계는 한 방향·순서 영향, 상호는 모든 방향 반영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단일 제품A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방법(선입선출법 적용)을 사용한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 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제품A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제품A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단, 생산과정 중 감손이나 공손 등 물량손실은 없다.)

구 분	물 량(완성도)
기초재공품	100개 (30%)
당기착수품	2,100개
당기완성품	( )개
기말재공품	200개 (40%)

구 분	직접 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	₩28,000	₩25,000
당기발생원가	630,000	205,000
계	₩658,000	₩230,000

① ₩384

② ₩390

③ ₩404

④ ₩410

⑤ ₩4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 따라 당기 작업분의 완성품환산량과 단위당 원가를 구한 뒤, 기초재공품 완성원가와 당기 착수·완성품 원가를 합하여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공품은 100개이고 가공원가 완성도는 30%이다. 당기 착수품은 2,100개, 기말재공품은 200개이며 가공원가 완성도는 40%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에는 당기 직접재료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고, 기말재공품의 직접재료 완성도는 100%이다. 당기 발생원가는 직접재료원가 630,000원, 가공원가 205,0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 완성품 수량=기초재공품+당기 착수품-기말재공품
당기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당기 발생원가선입선출법상 당기 완성품환산량
완성품 단위당 원가=완성품에 배부된 총원가당기 완성품 수량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의 전기 작업분과 당기 작업분을 구분하므로, 당기 발생원가는 당기에 수행한 작업의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눈다.

계산 과정

1. 당기 완성품은 100개+2,100개-200개=2,000개이다. 이 중 당기 착수·완성품은 2,000개-100개=1,900개이다.
2.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 추가 투입분 0개+당기 착수·완성품 1,900개+기말재공품 200개=2,100개이다. 따라서 직접재료 단위당 원가는 630,000원÷2,100개=300원이다.
3.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 잔여 작업 100개×70%+당기 착수·완성품 1,900개+기말재공품 200개×40%=2,050개이다. 따라서 가공원가 단위당 원가는 205,000원÷2,050개=100원이다.
4. 기초재공품 완성원가는 전기 원가 53,000원에 당기 가공원가 100개×70%×100원=7,000원을 더한 60,000원이다.
5. 당기 착수·완성품 원가는 1,900개×(300원+100원)=760,000원이다. 따라서 완성품에 배부된 총원가는 820,000원이고,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820,000원÷2,000개=41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384는 완성품에 배부된 총원가 820,000원을 완성품 2,000개로 나눈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384가 아니라 ₩410이다.
② X — ₩390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직접재료 300원과 가공원가 100원 및 기초재공품 원가를 반영한 완성품 단위당 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390이 아니라 ₩410이다.
③ X — ₩404는 완성품 총원가 820,000원과 완성품 수량 2,000개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404가 아니라 ₩410이다.
④ O — 완성품 총원가 820,000원을 완성품 2,000개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는 ₩410이다.
⑤ X — ₩420은 계산 결과 ₩410보다 10원 크다. ₩420이 아니라 ₩410이다.

오답 포인트

기초재공품 원가 53,000원을 당기 원가와 섞어 당기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안 된다.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 발생원가만 당기 작업분의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고,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는 완성품 원가를 집계할 때 더한다. 또한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의 당기 직접재료 환산량은 0개이고 기말재공품은 200개 전부를 반영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량흐름으로 완성품 수량과 당기 착수·완성품 수량을 구한다. 다음으로 원가요소별 당기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고 당기 단위당 원가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와 잔여 작업원가, 당기 착수·완성품 원가를 합한 뒤 완성품 수량으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은 전기 원가와 당기 원가를 분리한다. 공정 초 전량 투입 재료는 기초재공품의 당기 환산량이 0이고,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은 100%이다.

NoteBase

문 40. 결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량기준법은 모든 연산품의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

② 분리점판매가치법(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③ 균등이익률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④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

⑤ 균등이익률법과 순실현가치법은 추가가공을 고려한 방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결합원가 배부방법마다 같아지도록 설계된 기준이 물량 단위당 배부액인지, 분리점의 매출총이익률인지, 추가가공 후의 매출총이익률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량기준법은 생산량 등 물리적 측정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분리점판매가치법은 분리점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순실현가치법은 최종판매가치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 등을 뺀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연산품의 추가가공 후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총원가를 역산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물량기준법은 각 연산품의 물량에 비례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므로, 물량 단위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물량 단위당 결합원가 배부액이 같아진다.
② O. 분리점판매가치법은 결합원가를 각 연산품의 분리점판매가치에 비례하여 배부하므로 분리점에서 각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진다.
③ O. 균등이익률법은 결합제품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각 연산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총원가를 정한 뒤,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해 결합원가 배부액을 역산한다. 따라서 추가가공 후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진다.
④ X. 틀린 표현은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이다. 순실현가치법은 각 연산품의 순실현가치에 비례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할 뿐이므로 추가가공원가의 상대적 크기가 다르면 매출총이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추가가공 후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드는 방법은 균등이익률법이다'이다.
⑤ O. 순실현가치법은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 관련 원가를 차감하고, 균등이익률법도 추가가공 후의 최종 매출과 추가가공원가를 이용하므로 두 방법 모두 추가가공을 고려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순실현가치법과 균등이익률법이 모두 추가가공을 고려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두 방법의 결과도 같다고 오인하게 만든다. 추가가공을 고려한다는 사실과 각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는 결과는 별개이며, 후자는 균등이익률법만의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법의 이름과 같아지는 기준을 연결한다. 물량기준법은 물량 단위당 배부액, 분리점판매가치법은 분리점 매출총이익률, 균등이익률법은 추가가공 후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한다. 순실현가치법은 순실현가치의 비율로 배부할 뿐 매출총이익률의 일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추가가공 후 이익률을 '균등'하게 만드는 것은 균등이익률법이고, 순실현가치법은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부한다.

NoteBase